

5~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고구려의 한강유역 점령과 상실을 중심으로

The relations between Koguryo and Paekche for the 5th~6th centuries -focusing on the power of Koguryo in the basin of the Han River-

저자 (Authors)	노중국 Noh, Choong-Kook
출처 (Source)	동북아역사논총 (11) , 2006.6, 7-64(58 pages) Dongbuga Yeoksa Nonchong (11) , 2006.6, 7-64(58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116013
APA Style	노중국 (2006). 5~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동북아역사논총(11), 7-6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19 14:1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5~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 고구려의 한강유역 점령과 상실을 중심으로 -

노 중 국 | 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

I 머리말

5~6세기는 고대 동아시아사회에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커다란 정치적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다. 특히 고구려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5세기대에는 고구려가 성세를 이루어 주변 제국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6세기 전반을 지나면서 안으로 귀족들의 분열로 그 힘이 미약해지자 주변 제국이 역으로 힘을 뻗쳐 나갔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삼국 사이에 벌어진 한강유역 쟁탈전이다. 이 쟁탈전은 475년에서 554년에 사이에 전개된 삼국의 역학관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점령하였다가 다시 빼앗기기까지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주목되어 왔다. 첫째는 고구려 장수왕이 한강유역을 점령하려 한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고, 둘째는 한강유역을 점령한 고구려가 이

* 이 논문은 고구려연구재단의 2005년도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성립되었음.

지역을 어떻게 지배하려고 하였는가 하는 점이며, 셋째는 고구려는 변화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였느냐 하는 점이다.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475년 한성을 함락한 고구려가 언제까지 한강유역을 점령하고 있었으며 그 기간 동안 이 지역을 어떻게 지배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의하면 고구려는 한성을 함락한 후 곧바로 철군하였고, 백제는 熊津도읍기에 와서도 황해도 新溪지역까지를 여전히 영역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근래에는 이를 근거로 하여 백제가 동성왕~무령왕대에 한강 이북지역까지 진출하였다가 성왕 7년(529)에 다시 빼앗겼고 최종적으로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된 것은 551년이라고 하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강유역을 비롯하여 대전, 청원 등지에서 고구려 유적이 발견되고 있어 551년 이전에 백제가 한강유역을 차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비록 국경선은 들쭉날쭉하더라도 551년까지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지배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은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5~6세기 한반도에서의 역학관계는 고구려와 백제가 대결의 중심軸을 이루었고 여기에 신라와 가야가 일정하게 대응해 나가는 형태였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475년에 고구려가 백제로부터 한강유역을 빼앗은 이후부터 551년에 백제가 이 지역을 회복하였다가 554년에 신라가 이 지역 모두를 차지하기까지 한강유역을 둘러싸고 전개된 삼국 사이의 관계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빈약한 자료를 가지고 정리하다 보니 무리한 논지 전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미비점은 질정을 받아 후일 보완할 것을 기약하는 바이다.

II 고구려의 백제 공격과 한성 함락

1. 백제 공격 배경

4세기 후반에 들어와 고구려의 남진 정책과 백제의 북진 정책으로 양국은 빈번히 군사적 충돌을 하였다. 그러나 5세기 전반으로 들어오면서 상황은 변화하였다. 백제에서는 解氏세력이 전지왕의 즉위를 계기로 이제까지 대고구려 강경책을 주도하였던 眞氏세력을 대신하여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안정시키기 위해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였다. 한편, 고구려 장수왕도 평양천도를 추진하면서 국내 정세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 종래의 남진 정책을 일단 유보하였다. 이리하여 양국 관계는 일시적으로 충돌이 없는 소강상태로 들어갔다.

그러나 장수왕이 427년에 평양천도를 단행하여 강력한 왕권을 확립한 후 남진정책을 재개하자 양국 사이에 긴장이 조성되었고 그 긴장 관계는 30여 년간이나 계속되었다.¹⁾ 따라서 467년(개로왕 13) 이후 친위정변을 단행하여²⁾ 왕권 중심의 정치운영을 본격적으로 도모하게 된 개로왕대의 대외 정책은 469년에 고구려의 남쪽 변방을 공격한 것에서 보듯이³⁾ 고구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취하면서 신라와 왜 및 중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하였다. 이 시기 백제와 신라의 관계는 共守동맹관계였다. 455년에 고구려가 공격해 오자 갓 왕위에 오른 개로왕은 급히 신라에 원군을 요청하였고 신라는 구원군을 파견하여 고구려군의 공격을 물리친 것은⁴⁾

- 1) 개로왕이 472년에 북위에 보낸 국서에 “構怨連禍 三十餘載”라고 한 기사 참조.
- 2) 김수태, 2000, 『백제 개로왕대의 대고구려전』, 『백제사상의 전쟁』(서경문화사), 226쪽.
- 3) 개로왕 15년(469)에 고구려의 남쪽 변방을 공격한 것이 그 예가 된다.
- 4)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 눌지왕 39년조에 “冬十月 高句麗侵百濟 王遣兵救之”이

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개로왕의 對倭외교에서 주목되는 것은 동생 곤지를 왜에 파견한 사실이다. 개로왕은 456년에 池津媛을 왜에 보냈지만 이 여인이 淫行으로 불태워죽자⁵⁾ 왜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459년에 동생 昆支를 왜에 보냈던 것이다.⁶⁾ 곤지를 보내면서 친황을 섬기라고 한 것은 『일본서기』 편찬자의 윤색과 왜곡이며 실제의 내용은 왜와의 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개로왕은 4년(458)에 송에 사신을 보내 行冠軍將軍右賢王餘紀 등 11인의 爵號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 허락을 받았고,⁷⁾ 17년(471)에도 사신을 파견하여 송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였다.

이렇게 주변 제국과의 우호관계를 다진 개로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472년에 북위에 사신을 파견하여 고구려를 견제해 달라는 외교적 교섭을 시도하였다. 개로왕의 이러한 외교적 조처는 독자적인 힘만으로 고구려에 대항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로왕은 고구려가 남으로 劉宋과 통하고 북으로 蠕蠕와 통하고 있으므로 응징되어야 하며 고구려가 북위의 사신을 물에 빠뜨려 죽였으므로 마땅히 공격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 고구려는 大臣強族들을 무수히 죽여 내분에 빠져 있고 樂浪유민과 北燕의 馮族들도 고구려에 心服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들어 지금이 바로 공격할 시기임을 강조하였다.⁸⁾ 그러나 북위는 고구려가 예로부터 북위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다는 것과 백제와 고구려는 사이 좋게 지내야 한다는 當爲論만 내세우며 백제의 요청에는 끝내 응하지 않았다. 이에 개로왕은 곧 북위와의 외교 교섭을 중단해 버렸다.⁹⁾

라 한 기사 참조.

5) 『일본서기』 권14, 용략기 2년 추7월조.

6) 『일본서기』 권14, 용략기 5년조에 “夏四月 百濟加須利君 …… 籌議曰 昔貢餘人爲采女 而旣無禮 失我國名 自今以後 不合貢女 乃告其弟軍君(峴支君也)曰 汝宜往日本 以事天皇…….”이라 한 기사 참조.

7) 『송서』 권97, 열전제57, 夷蠻 백제전.

8) 『위서』 권100, 열전제86, 백제전에 개로왕이 보낸 국서에 “今璉有罪 國自魚肉 大臣彊族 戮殺無已 罪盈惡積 民庶崩離 是滅亡之期 假手之秋也 …… 馮族士馬 有鳥畜之戀 樂浪諸郡 懷首丘之心 天威一舉 有征無戰…….”이라 한 기사 참조.

9) 『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 개로왕 18년조.

백제가 신라, 왜, 남조와의 우호관계를 형성하고 北魏에까지 접근한 것은 고구려 대한 전방위적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하여 고구려는 472년에 북위에 두 차례에 걸쳐 사신을 파견하고 공현도 배가하면서 북위가 백제와 접촉하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 하였다. 나아가 북위가 백제와 연결하여 본격적으로 동북아 방면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비하여¹⁰⁾ 그 전에 백제를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리하여 장수왕의 백제 공격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2. 한성 함락

백제 공격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백제 내부 사정을 정확히 탐지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에 장수왕은 승려 道琳에게 백제의 내정을 정탐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겼다. 도림의 실체는 분명하지 않지만 개로왕이 고구려 내정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소상한 정보가 도림에게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그가 개로왕의 신임을 받은 것 등에서 미루어 볼 때 그는 고구려 내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승려가 아니었을까 한다. 도림이 백제로 들어간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개로왕이 472년에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를 공격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장수왕이 백제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것과 연관시켜 볼 때 472년경이 아니었을까 한다.

개로왕은 도림이 백제의 내정을 정탐하려는 첩자임을 알지 못한 채 그를 신임하였다. 개로왕이 그를 신임한 이유에 대해 『삼국사기』에는 도림이 바둑으로 개로왕을 사로잡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물론 바둑이 두 사람을 연결시킨 좋은 매개체 역할을 하였음은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한다. 첫째, 도림은 “於是道琳佯逃罪 奔入百濟 ……”에서 보듯이 고구려에서 죄를 면하기 위해 도망해 온 것처럼 위장하

10) 노태돈, 1999, 『고구려사연구』(사계절), 312쪽.

였다는 점이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타국으로 망명할 때 이러한 위장술을 쓰는 것은 비밀비재하다. 신라의 朴堤上이 왜에 인질로 가 있는 未斯欣을 구출하기 위해 왜로 들어갈 때 죄를 지은 것처럼 한 것도¹¹⁾ 방중 사례가 될 것이다. 개로왕은 이런 숨은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채 도리어 道琳을 고구려를 도모하는데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한다. 둘째로 그가 승려로서 백제에 들어왔다고 하는 점이다. 승려는 일단 속세를 떠난 몸이므로 개로왕은 도림이 아무런 욕심이 없는 인물로 판단하였을 수도 있다. 셋째로 이 시기 개로왕이 추진하고 있었던 것은 강력한 왕권의 확립이었다. 도림은 개로왕의 이러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실천 방안을 왕에게 조언하여 신임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이리하여 도림은 개로왕의 깊은 신임을 받아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해 나갔다.¹²⁾ 도림으로 대표되는 세력이 급격히 부상하게 되자 이에 반발한 세력들도 나오게 되었다. 그 반발세력은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467년을 전후하여 개로왕의 왕권강화 정책에 적극 협조하였던 세력들의 불만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도림이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하나는 불교계 세력들의 만만치 않은 반발이다. 이들로서는 외국 승려 도림이 왕의 신임을 받는 것을 그대로 용인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도림의 세력 확장에 제동을 걸려 하였지만 제대로 되지 않자 일부 세력들은 백제를 이탈해 나가기도 하였다. 再曾桀婁와 古弇萬年이 죄를 지어 고구려로 도망을 갔다고 하는 것이¹³⁾ 그 예가 된다.

반대세력들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임을 받은 도림은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추진하게 하였다. 그가 내세운 명분은 현재처럼 성곽은 修葺되지 않

11) 『삼국사기』 권45, 열전, 박제상전에 “遂徑入倭國 若叛來者 倭王疑之……”라 한 기사 참조.

12) 『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 개로왕 21년조 “遂尊之爲上客 甚親昵之 恨相見之晚”이라 한 기사 참조.

13) 『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 개로왕 21년조에 “桀婁萬年本國人也 獲罪逃竄高句麗”이라 한 기사 참조.

고, 宮室도 수리되지 않고, 선왕의 해골도 露地에 임시로 묻어두고, 백성들의 가옥이 강물에 여러 번 떠내려가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왕실의 송고한 위엄과 부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백제의 재정을 고갈시키고 민력을 피폐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개로왕은 도림의 숨은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채 백성들을 동원하여 烝土築城하였고, 궁궐과 누각과 대사를 장려하게 꾸몄으며, 郁里河에서 큰 돌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무덤을 새로 만들었고, 승산에서 사성에 이르는 한강 연안에 제방을 쌓았다.¹⁴⁾ 개로왕은 이러한 대규모의 토목 사업들을 民力을 살피가면서 순차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동시 다발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재정은 탕진되고 민력은 극도로 피폐하게 되었다. 한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是以倉庾虛竭 人民窮困 邦之隍柁 甚於累卵”¹⁵⁾이라 한 개로왕의 말은 이 당시 백제의 파탄된 재정 상태와 피폐된 민력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개로왕이 재정을 탕진하고 민력을 피폐하게 하도록 한 도림은 장수왕에게 백제의 내부 상황을 상세히 보고하였다. 이 정보를 토대로 장수왕은 3만의 군대를 동원하여 친정에 나섰다. 평양에서 출발한 고구려군은 개성에서 장단을 거쳐 瓠蘆河나 七重河를 건너 積城(七重城)을 통하여 楊州를 지나 중랑천이나 왕숙천을 끼고 남하하여 아차산 줄기를 따라 고두보를 확보한 후¹⁶⁾ 아차성에 주둔하였다. 그리고 대로 齊于와 백제에서 도망해온 古亦萬年과 再曾築婁를 선봉으로 삼아 한성을 공격하게 하였다. 고이만년과 재증걸루는 도림의 득세에 반발하여 고구려로 망명하였는데 장수왕은 이들이 백제의 지리와 내부 정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봉장으로 등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군은 먼저 평지성이면서 규모가 큰 북성, 즉 풍납토성을 네 길로 나누어 공격하

14) 『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 개로왕 21년조에 “王曰諾 吾將爲之 於是 盡發國人 烝土築城 卽於其乃作宮樓閣臺榭 無不壯麗 又取大石於郁里河 作槨以葬父骨 沿河樹堰 自蛇城之東 至崇山之北”이라 한 기사 참조.

15) 『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 개로왕 21년조.

16) 최중택, 2000, 「특별전 고구려, 한강유역의 고구려 요새」, 기념강연회 발표요지(서울대학교박물관) 참조.

여 7일 만에 함락하였다. 남성인 몽촌토성에 있던 개로왕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성을 나와 도망하다가 고구려군에 붙잡혀 아차성 아래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몽촌토성도 함락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장수왕은 한성을 함락하고 개로왕을 죽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한성을 함락하고 개로왕을 죽인 장수왕은 문주왕이 새로이 천도한 웅진지역으로 밀고 내려가지 않았다. 당시 고구려군의 기세로 보아 백제를 충분히 멸망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¹⁷⁾

첫째,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한 목적이 무엇이나 하는 점이다. 만약 백제를 멸망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었다면 장수왕은 곧바로 문주왕을 추격하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장수왕은 한성을 함락하고 개로왕을 죽인 후 일부의 군대를 남겨두고 곧바로 철군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장수왕의 백제 공격의 목적은 수도 함락과 일정한 지역을 차지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군이 백제군을 추격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한다.

둘째, 개로왕은 자신의 실정으로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한 채 한성을 함락당하였지만 백제의 저항력이 본래 만만한 것은 아니었다. 이 점은 백제가 망한 후 곧바로 각 지역에서 부흥군이 일어나 나·당점령군을 맹렬히 공격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는 바이다. 따라서 장수왕이 문주왕을 쫓아 추격해 갔다면 백제의 각 지역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장수왕은 백제의 이러한 잠재력을 과소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을 자제하지 않았을까 한다.

셋째는 신라의 동향이다. 이 시기 백제와 신라는 공수동맹관계를 맺어 고구려의 압력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더구나 문주왕은 1만의 신라 원군을 이끌고 한성으로 왔다. 고구려가 문주왕을 추격하면 결국 신라군과 대결하게 되고 그에 따라 신라의 백제 구원도 보다 본격적으로 행해지게 되었을 것

17) 이에 대해서는 노중국, 2004, 「한성백제의 몰락과 수도 이전」, 『향토서울』64집(서울시사편찬위원회), 65~67쪽 참조.

이다. 백제와 신라의 공동 전선 형성의 가능성은 장수왕이 문주왕을 추격하는 것에 일정한 制動役割을 하지 않았을까 하다.

넷째, 백제와 긴밀한 관계에 있던 왜군의 동향도 고려해야 한다. 백제의 멸망은 왜에게도 커다란 위협이 되고 이러한 위협을 막기 위해 왜는 군사를 파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송서』 왜전에 5세기에 들어와 왜왕 濟가 고구려의 對宋외교 방해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고구려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든가¹⁸⁾ 663년에 왜가 백제부흥군을 지원하기 위해 白江口 전투에 2만 7천명이라 되는 대군을 보낸 것에서 입증되리라 본다. 『일본서기』 雄略紀에 고구려 장수들이 백제를 멸망시키자고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왕은 백제가 왜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면서 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 것도¹⁹⁾ 고구려가 만약 백제를 추격하면 왜가 어떤 형태로든 참전할 것을 예견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다섯째는 북위의 동향이다. 장수왕은 이번의 공격을 위해 3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발동하였지만 광개토대왕이 400년에 백제를 공격할 때 동원한 5만 명보다 훨씬 적은 수이다. 장수왕이 광개토대왕 때보다 적은 수의 군대를 동원한 것은 북위와의 긴장관계 때문이었던 것 같다. 즉 장수왕으로서는 대군이 남쪽으로 진군하면 북쪽의 방어문제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북위의 동향이 고구려의 남진에 제약을 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²⁰⁾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한 장수왕은 한성을 함락하고 그 이남의 일정한 지역까지를 영역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더 이상 문주왕을 추격하지 않았을까 한다. 그 덕분에 문주왕은 웅진으로 천도하여 나라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18) 『송서』 권97, 열전제57, 夷蠻 왜전.

19) 『일본서기』 권14, 옹락기 20년조에 “於是高麗諸將言於王曰 百濟心計非常 臣每見之 不覺自失 恐更蔓生 請遂除之 王曰不可矣 寡人聞百濟國子日本國之官家 所由來遠久矣 又其王入仕天皇 四隣之所共識耶 遂止之”라 한 기사 참조.

20) 노태돈, 1999, 앞의 책, 312~313쪽.

Ⅲ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

1. 지명 검토

고구려가 한성을 함락하고 한강유역을 점령한 이후 점령지를 언제까지 어떻게 지배하였는가. 이 문제를 해명하는데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웅진도읍기의 백제와 고구려가 여러 차례 충돌한 곳이 어디이나 하는 것이다. 먼저 이와 관련한 기사를 백제본기에서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 삼근왕 2년 春 佐平解仇與恩率燕信聚衆 據大豆城叛 王命佐平眞男以兵二千討之
- 동성왕 4년 秋九月 靺鞨襲破漢山城 虜三百餘戶而歸
- 동성왕 5년 春 王以獵出 至漢山城 撫問軍民 浹旬乃歸
- 동성왕 8년 秋七月 重修宮室 築牛頭城
- 동성왕 16년 秋七月 高句麗與新羅戰薩水之原 新羅不克 退保犬牙城 高句麗圍之 王遣兵三千救之 解圍
- 동성왕 17년 秋八月 高句麗來圍雉壤城 王遣使新羅請救 羅王命將軍德智 帥兵救之 麗兵退歸
- 동성왕 21년 夏大旱 民饑相食 盜賊多起 臣寮請發倉賑救 王不聽 漢山人亡命入高句麗者二千
- 동성왕 22년 夏四月 田於牛頭城
- 무령왕 즉위년 春正月 佐平苜加據加林城叛 王帥兵馬 至牛頭城 命扞率解明討之 苜加出降 王斬之 投於白江 冬十一月 遣達率優永 帥兵五千 襲高句麗水谷城
- 무령왕 2년 冬十一月 遣兵侵高句麗邊境
- 무령왕 3년 秋九月 靺鞨燒馬首柵 進攻高木城 王遣兵五千 擊退之
- 무령왕 6년 秋七月 靺鞨來侵 破高木城 殺虜六百餘人
- 무령왕 7년 夏五月 立二柵於高木城南 又築馬首柵 以備靺鞨 冬十月 高句麗將高老與靺鞨謀欲攻漢城 進屯於橫岳 王出師 戰退之

- 무령왕 12년 秋九月 高句麗襲取加弗城 移兵破圓山城 殺掠甚衆 王帥勇騎三千 戰於葦川之北 麗人見王軍少 易之不設陣 王出奇急擊 大破之
- 무령왕 23년 春二月 王幸漢城 命佐平因友 達率沙烏等徵漢北州郡 民年十五歲已上 築雙峴城 三月 至自漢城
- 성왕 7년 冬十月 高句麗王興安 躬帥兵馬來侵 拔北鄙穴城 命佐平燕謨 領步騎三萬 拒戰於五谷之原 不克 死者二千餘人
- 성왕 18년 秋九月 王命將軍燕會 攻高句麗牛山城 不克
- 성왕 26년 春正月 高句麗王平成 與滅謀 攻漢北獨山城 王遣使請救 於新羅 羅王命將軍朱珍 領甲卒三千發之 朱珍日夜兼程 至獨山下 與麗兵一戰 大破之
- 성왕 28년 春正月 王遣將軍達已 領兵一萬 攻取高句麗道薩城 三月 高句麗兵圍金峴城

이 기사들에 나오는 지명 가운데 백제의 성은 馬首柵, 雉壤城, 牛頭城, 漢山城, 高木城, 加弗城, 圓山城, 漢北州郡, 獨山城 錦峴城 등이고 고구려의 성은 牛山城, 水谷城, 道薩城 등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고구려나 말갈이 이 지역을 공격하였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성 이름 앞에 고구려가 붙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이다. 그런데 이 지명들은 한성도읍기에 한강유역이나 그 이북에 있었던 지명들과 일치한다. 마수성은 온조왕 8년조와 다루왕 3조에 나오고, 치양성은 근초고왕 24년조에, 우두성은 온조왕 18년조에, 한산성은 온조왕 즉위년조에, 고목성은 온조왕 22년조에, 원산성은 온조왕 26년조에, 독산성은 근초고왕 28년조에, 금현성은 온조왕 26년조에, 수곡성은 근초고왕 30년조에 나온다. 이 가운데 漢山은 오늘날의 남한산에, 漢城은 오늘날 서울에, 牛頭城은 오늘날 춘천에, 高木城은 오늘날 경기도 連川지방에, 雉壤은 황해도 白川에, 水谷城은 황해도 新溪에 비정되고 있다.²¹⁾

웅진도읍기의 이 지명들의 위치를 한성도읍기의 것과 같은 것으로 보면

21) 이들 지명의 위치비정에 대해서는 정구복 외, 1997, 『역주 삼국사기』 3주석편(상)(韓國精神文化研究院), 588~606쪽 및 650~652쪽 참조.

백제는 475년 이후 동성왕대에 한강 이북지역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셈이 된다. 이러한 상황은 551년에 백제가 신라·가야군과 연합하여 고구려로부터 한강유역을 탈환하였다는 것과 상치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연구 경향은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웅진도읍기의 백제가 한강 이북지역을 차지하였다는 것은 신빙할 수 없다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虜男女八千而歸”라는 기사와²²⁾ 백제본기 웅진도읍기의 지명 기사를 그대로 취신하면서 이 문제를 해명하려는 입장이다.

기사 불신론의 견해는 셋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백제 왕실이 남천하면서 한성시대의 지명을 이동시킨 것으로 본 견해이다. 그 예로서 웅진시대의 한성을 稷山에 비정하거나 大豆城을 牙山지역에 비정한 것을 들 수 있다.²³⁾ 둘째는 사비시대에 와서 武寧王系의 왕실이 왕실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강유역의 상실을 의도적으로 은폐시키고 한성시대의 直系계승 왕통과 영토의 回歸라는 염원을 반영하여 마치 한강유역을 백제가 그대로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하였다고 보는 견해이다.²⁴⁾ 셋째는 최근에 나온 견해로 웅진도읍기의 이 기사들은 백제가 한강이북 지역을 확보하고 있던 4세기 후반의 사실이 거꾸로 내려가서 잘못 실린 결과로 본 것이다.²⁵⁾

한편, 이 기사들을 신빙하는 견해도 둘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장수왕의 공격 이후에도 한성은 고구려에 점령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²⁶⁾ 둘째는 동성왕·무령왕대에 걸쳐서 한강유역을 회복하였다거나 성왕 7년에 五谷之

22)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 장수왕 63년조.

23) 이기백, 1978, 「웅진시대 백제의 귀족세력」, 『百濟研究』 9집(충남대 백제연구소), 7쪽.

24) 이도학, 1984, 「한성말 웅진시대 백제왕계의 검토」, 『한국사연구』 9집(한국사연구회), 23~25쪽.

25) 강종훈, 2006,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사료계통과 그 성격」, 『삼국사기의 원전 및 사료 가치』, 한국고대사학회 제19회 합동토론회 발표요지집(한국고대사학회), 67~68쪽.

26) 천관우, 1976, 「삼한의 국가형성」, 『한국학보』 3집(일지사), 115쪽.

原에서의 패배로 한강유역을 고구려에 다시 빼앗겼으며 성왕 29년(551)에 백제가 다시 찾은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²⁷⁾ 그러나 이 견해는 성왕 26년(548)조에 나오는 “高句麗王平成與濊謀 攻漢北獨山城”이라 한 기사를 해명하지 않으면 성립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漢北이 한강 북쪽이라고 하면 獨山城은 한강 이북에 위치한 것이 되는데 이는 성왕이 529년에 비록 오곡전투에서 패하였지만 548년 이전에 한강 이북 지역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백제가 551년에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 신라·가야와 연합군을 형성하여 고구려를 공격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필자는 비록 강역의 伸縮은 있었지만 고구려가 475년에서 551년까지 한강유역과 그 이남지역을 일정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바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²⁸⁾ 첫째, 장수왕이 한성을 함락한 후 포로 8천명을 붙잡아 돌아갔다고 할 때의 歸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되어진다. 하나는 장수왕이 주력군만을 거느리고 귀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²⁹⁾ 다른 하나는 고구려군 모두가 돌아간 것으로 보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로 해석한다면 한강유역은 고구려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지역이 되지만 전자의 경우로 해석하면 장수왕은 일부의 군대를 남겨둔 것이 되어 고구려는 어떠한 형태로든 한성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 된다. 필자는 몽촌토성에 고구려군이 주둔한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에서 전자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수도의 함락과 이를 영유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는 점이다. 수도가 가지는 상징성을 생각할 때 고구려가 백제 수도 한성을 함락한 후 그 지

27) 이런 입장에서 서술된 글로는 박찬규, 1991, 「백제 웅진초기 북경문제」, 『사학지』 24집(단국사학회), 61~63쪽; 김영관, 2000, 「백제의 웅진천도 배경과 한성경영」, 『충북사학』 11·12집, 79~82쪽; 김병남, 2002, 「백제 웅진시대의 북방 영역」, 『백산학보』 64집(백산학회); 양기석, 2005, 「5~6세기 백제의 북계-475~551 백제의 한강유역 영유문제를 중심으로-」, 『박물관기요』20(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48쪽; 서영일, 2005, 「5~6세기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경영」, 『박물관기요』 20(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60~61쪽 등을 들 수 있다.

28) 이에 대해서는 노중국, 2004, 앞의 논문, 68~71쪽 참조.

29) 이도학, 1984, 앞의 글, 24쪽.

역을 곧바로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구려는 가능하면 한성지역을 지배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이는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전후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이 수도인 평양을 점령하고 그 이남지역을 신라가 차지하도록 한 것이³⁰⁾ 이를 傍證해 준다.

셋째, 고구려는 매우 공을 들여 백제를 공격하였다는 점이다. 백제 공격을 위해 장수왕은 도림으로 하여금 죄를 지은 사람처럼 위장하여 백제에 들어보내 내부 사정을 정탐하도록 하였고, 그로부터 연락이 오면 곧장 출동할 수 있도록 군대를 훈련시켜 두었던 것이다.

넷째, 고구려의 백제 공격은 장수왕의 親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왕이 친히 정복에 나섰다는 것은 장수왕이 그만큼 이 전쟁을 중히 여겼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친정까지 하여 점령한 한성을 고구려가 곧장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섯째,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왕봉현과 달을성에 안장왕과 관련된 지명유래 설화가 나온다는 점이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다음의 기사이다.

王逢縣(一云皆伯 漢氏美女迎安臧王之地 故名王逢) 達乙城(漢氏美女於高山頭點烽火 迎安臧王之處 故後名高峰)³¹⁾

이 기사에 의하면 왕봉현과 달을성은 안장왕이 漢氏 美女를 맞이한 것에서 지명이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지명유래와 관련한 기사가 거의 없으므로 이 지명유래는 그 의미하는 바가 크며 설화적인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안장왕의 재위기간은 519~530년이고, 王逢縣은 오늘날의 경기도 고양시 행주 내동·외동 일대이고 達乙城은 경기도 고양시 관산동 일대이다.³²⁾ 이 지역은 모두 한강유역에 위치하였다. 안장왕이 이곳으로

30)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하 11년조에 나오는 報書에 “我平定兩國 平壤已南百濟土地 並乞你新羅 永爲安逸”이라 한 기사 참조.

31) 『삼국사기』 권37, 지리지4, 고구려 한산주.

32) 정구복 외, 1997,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 하(韓國精神文化研究院), 248·251쪽.

내려와 漢氏 미녀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곳이 고구려의 영역이어야 한다. 이곳이 만약 백제의 영역이라면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유래담은 6세기 전반에도 한강유역이 고구려의 영역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여섯째,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연혁관련 기사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이 신라의 영역으로 되기 직전에 어느 나라의 영역이었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지리지에 의하면 漢州 관내의 모든 군현은 “牛峯郡本高句麗牛峯郡 景德王改名”이라 한 것처럼 모두 “本高句麗○○縣(郡)”으로 나온다. 만약에 이 지역이 신라에 편입되기 직전에 백제의 영역이었다면 지리지에서는 “本百濟○○縣(郡)”으로 표기되어야 하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모두 本高句麗○○縣(○○郡)으로 표기되고 있다는 것은 이 지역이 신라의 영역이 되기 전에 고구려 영역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곱째, 551년에 백제를 중심으로 한 신라·가야 三國 연합군이 한강유역으로 진군하여 백제는 한강 하류의 6군을, 신라는 한강 상류의 10군을 차지하였다는 사실이다. 『일본서기』에는 백제가 차지한 지역을 漢城과 平壤이라고 구체적인 지명까지 기록하고 있고, 『삼국사기』 거칠부 열전에는 신라가 고구려로부터 빼앗은 지역을 구체적으로 “竹嶺以外高峴以內”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는 한강유역과 죽령 이북지역이 551년 이전에 고구려의 영역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덟째, 중원고구려비에 의하면 문자명왕(491~519) 대에도 충주지역이 고구려의 영역이었다고 하는 점이다. 중원고구려비의 건립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³³⁾ 祖王이라는 명칭과 태자 共=助多의 존재 등에서 미루어 볼 때 문자명왕이 아버지인 태자 共=助다가 조왕인 장수왕대에 활동한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비의 건립 시기는 문자명왕대일 가능

33) 중원고구려비의 건립연대에 대해서는 장수왕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광개토왕대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런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는 고구려연구회편, 2000, 『중원고구려비 연구』(학연문화사) 참조.

성이 크다.³⁴⁾ 문자명왕이 4년(495) 7월에 ‘南巡狩 望海而還’ 한 것은 이 비의 건립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³⁵⁾ 따라서 이 비가 세워진 충주지역은 문자명왕대에도 고구려의 영역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면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나오는 웅진도읍기의 지명들이 한성도읍기의 지명들과 대다수 일치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필자는 지명 移置之 관점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지명의 이치를 보여주는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첫째, 牛頭城이다. 웅진도읍기의 우두성은 동성왕이 8년(486)에 축조하였다. 이후 동성왕은 22년(500)에 이곳에서 田獵을 하였고 무령왕은 즉위년(501)에 笈加가 加林城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친히 군대를 이끌고 牛頭城에 와서 解明으로 하여금 토벌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우두성은 백가가 반란을 일으킨 가림성(임천의 성흥산성)과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성도읍기의 온조왕 18년조에 나오는 우두성은 춘천으로 비정되고 있다. 동성왕대에 새로 축조된 우두성을 춘천으로 보면 무령왕이 가림성을 공격하기 위해 우두성으로 진군하였다는 사실이 해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성왕대의 우두성은 춘천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하면 웅진도읍기의 우두성은 한성도읍기의 명칭을 이치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둘째, 위례성이다. 위례성은 본래는 우리, 울타리의 의미를 가졌지만 후일 백제의 수도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이 위례성은 大城, 漢城, 王城으로도 표기되었다.³⁶⁾ 한성도읍기의 위례성은 서울의 풍납토성·몽촌토성이다.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직산이 위례성으로 표기되고 있다. 이는 직산이 위례성=한성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웅진도읍기의 백제는 한성에서 내려온 민들을 이곳에 안착시키면서 이 지역을 위례성, 즉 한성으로

34) 중원고구려비의 건립 시기를 문자명왕대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김현숙, 2005, 『고구려의 영역지배 방식 연구』(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32~233쪽 참조.

35) 중원고구려비의 건립시기에 대해서는 별고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36) 『일본서기』 권14, 옹락기 20년조에는 “百濟記云 蓋鹵王乙卯年冬狍大軍來攻大城七日七夜 王城降陷 遂失尉禮”라 한 기사 참조.

부르지 않았을까 한다.³⁷⁾ 그렇다고 하면 이 또한 지명의 이치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셋째, 雙峴城이다. 한성도읍기의 쌍현성은 개로왕이 15년(469)에 고구려의 공격에 대비하여 靑木嶺과 함께 쌓았다. 청목령이 개성 부근에 비정되고 있으므로 쌍현성도 청목령과 비슷한 곳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무령왕은 23년(523)에 한성에 가서 漢北의 州郡民 가운데 나이 15세 이상인 자들을 징발하여 雙峴城을 축조하였다.³⁸⁾ 무령왕의 쌍현성에 대해 개로왕이 수축한 쌍현성이 475년 장수왕의 침공으로 파괴되자 무령왕이 다시 쌓은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³⁹⁾ 그러나 개로왕대의 쌍현성이 다시 쌓아야 할 정도로 파괴되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자료는 없다. 또 이때의 ‘築’은 牛頭城의 예에서 보듯이 改築이 아니라 新築을 의미하는 가능성이 크다.⁴⁰⁾ 그렇다면 무령왕대의 쌍현성은 개로왕대의 쌍현성과는 위치를 달리한다. 그런데 무령왕대의 쌍현성과 개로왕대의 쌍현성은 漢北을 공통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무령왕은 한북에서 남하해온 자들을 동원하여 성을 쌓은 후 성 이름을 쌍현성으로 한 것이 아닐까 한다.

넷째, 獨(秃)山城이다. 한성도읍기의 독산성은 근초고왕 28년(373)조에 나온다. 그런데 성왕은 26년(548)에 신라의 도움을 받아 독산성을 공격해온 고구려 및 예의 군대를 물리쳤다.⁴¹⁾ 성왕대의 독산은 孤山으로도 표기되며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응주 任城郡의 영현으로 고산현이 나온다. 한편, 『일본서

37) 이기백, 1982, 「웅진시대 백제의 귀족세력」, 『백제연구』 13(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38~39쪽.

38)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 무령왕 23년조에 “春二月 王幸漢城 命佐平因友 達率 沙烏等徵漢北州郡民年十五歲已上 築雙峴城 三月 至自漢城”이라 한 기사 참조.

39) 김병남, 2002, 「백제 웅진시대의 북방 영역」, 『백산학보』 64집(백산학회), 141~144쪽.

40) 다만 무령왕 3년에 말갈의 공격으로 불탄 마수성은 7년에 ‘又築’되고 있는데 이때의 又築은 改築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41)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 성왕 26년조에 “春正月 高句麗王平成與濊謀 攻漢北獨山城 王遣使請救於新羅 羅王命將軍朱珍 領甲卒三千發之 朱珍日夜兼程 至獨山下 與麗兵一戰 大破之”이라 한 기사 참조.

기』顯宗紀 3년(487)조에는 爾林이 고구려 땅으로 나오는데 흠명기 9년(548) 조에는 마진성으로 표기되고 있다. 마진성은 본래 고산이라 하였고 고산은 응주 임존성(오늘날의 예산군 대흥면)의 영현인 고산현이었다. 따라서 독산성은 오늘날의 예산군 예산읍에 비정할 수 있다.⁴²⁾ 이렇게 보면 근초고왕대의 독산성과 성왕대의 독산성은 위치를 달리한다. 필자는 성왕대의 독산성은 한성도읍기의 지명을 이치시킨 것으로 보고자 한다.

다섯째, 漢北이다. 한북은 漢水=漢江 북쪽이라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한수는 오늘날의 한강을 지칭한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성왕대의 漢北의 독산성을 예산군 예산읍이라고 하면 이 한북은 오늘날의 한강 북쪽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예산읍 지역이 한수의 북쪽에 있기 위해서는 한수는 예산 남쪽에 있어야 한다.⁴³⁾ 그런데 한수=한강은 원래 큰 강이라는 의미로서 보통명사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수는 특정한 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예로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나오는 ‘自漢水臨之’의 漢水이다.⁴⁴⁾ 이 한수는 문맥에서 미루어 오늘날 서울의 한강이 아니라 남한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예산 남쪽의 큰 강은 금강이므로 웅진도읍기의 한수=한강은 서울의 한강이라기보다는 금강을 지칭하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한다.⁴⁵⁾

여섯째, 雉壤城이다. 고구려는 문자명왕 4년(495)에 치양을 공격하였다. 한성도읍기의 치양은 황해도 배천으로 비정되어 왔다. 그런데 한해 앞서 고구려가 신라의 薩水之原을 공격하고 또 견아성을 공격하자 백제는 원군을 보내

42) 김태식, 1993, 『가야연맹사』(일조각), 244~246쪽.

43) 이때의 한북을 한강유역에서 牙山으로 移置된 漢山의 북쪽 지방이라는 뜻으로 해석한 견해도 있다(양기석, 2005, 「5~6세기 백제의 북계-475~551 백제의 한강유역 영유문제를 중심으로-」, 『박물관기요』20(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46쪽). 그렇다고 하면 이 견해는 지명 이동설의 일부를 채용한 것이 된다.

44)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 아달라이사금 14년조에 “八月 命一吉漁興宣 領兵二萬伐之王又率騎八千 自漢水臨之 百濟大懼 還其所掠男女 乞和”라 한 기사 참조.

45) 江名도 이치된다는 것은 淇水=淇河가 압록강을 지칭하기도 하고 예성강을 지칭하기도 하는 것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신라를 구원하였다.⁴⁶⁾ 살수지원의 위치는 살수가 어디인가에서 찾아야 한다. 청주목의 屬縣인 靑川縣의 이칭인 薩買縣의⁴⁷⁾ ‘買’는 ‘氷’로도 표기되어⁴⁸⁾ 薩買는 薩水가 되는데 이 살매=살수는 괴산군 靑川面에서 중원군 唵味面을 지나 충주로 흐르는 達川을 지칭한다.⁴⁹⁾ 그렇다고 하면 살수지원은 청천현에 비정할 수 있다. 고구려가 한해 전에 薩水之原=청천면 지역을 공격하였다고 하면 그 이듬해에 공격한 백제의 치양도 청천면과 가까운 곳으로 보아야지 황해도 배천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면 치양이라는 지명도 두 개가 되는 셈이 된다. 필자는 동성왕조의 치양은 한성도읍기의 치양의 명칭을 이치시킨 것으로 보고자 한다.⁵⁰⁾

그러면 지명 이치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주목하여야 할 것은 한성 함락이 준 충격파로 커다란 인구 이동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성의 함락은 백제 왕실로 하여금 웅진으로 천도하게 하였고 왕실의 남하는 한성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던 귀족들도 왕실과 더불어 남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상황은 지배층 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공격과 지배에 불안을 느낀 많은 민들도 남하하게 하였을 것이다. 이들의 남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집단적으로 남하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⁵¹⁾ 집단 이주의 경우 특정한 세력이나 귀족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백제 왕실을 따라서 또는 집단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남하해온 민들은

46)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 동성왕 16년조에 “秋七月 高句麗與新羅戰薩水之原 新羅不克 退保犬牙城 高句麗圍之 王遣兵三千救 解圍”이라 한 기사 참조.

4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5, 충청도 청주목 속현조에 靑川縣(在州東六十里 古薩買縣 一云靑川 高麗改今名來屬)이라 한 기사 참조.

48) 『삼국사기』 권35, 잡지제4, 지리2, 한주 水城郡조에 “水城郡本高句麗買忽郡 景德王改名 今水州”라 한 것이 그 예가 된다.

49) 김병남, 2002, 앞의 논문, 147~148쪽.

50) 이러한 사례에서 미루어 볼 때 한성도읍기에 황해도 신계지역으로 비정되는 수곡성이라든가 개성지역으로 비정되는 고목성 등도 移置된 지명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위치는 자료가 없어 알 수 없는 실정이다.

51) 이 점은 663년 백제부흥군이 멸망할 때 많은 백제유민들이 집단 망명한 것에서 방증이 되리라 본다.

각 지역에 정착하여야 하였다. 백제 왕실도 이들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새로이 이동해온 곳에 정착하도록 하여야 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정지역에서 집단적으로 이동해 온 자들은 새로운 곳에 집단적으로 정착하였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이 집단들은 새로이 정착한 곳의 지명을 자신들의 옛 거주지의 명칭으로 불렀고 이렇게 새로이 불린 지명은 그대로 그 지역의 지명이 되기도 하였을 것이다. 지명의 이치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생겨나지 않았을까 한다.

2. 지배범위

필자는 앞에서 고구려가 475년에서 551년 사이에 한강유역과 그 이남의 일정 지역을 지배하였고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나오는 웅진도읍기의 지명의 대다수는 한강유역 및 그 이북지역의 지명을 이치시킨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면 한강 이남지역에서 고구려의 지배력이 미친 지역은 어디까지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먼저 전제로 해 두어야 할 것은 영역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힘의 강약에 따라 변동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먼저 문헌 자료를 통해 고구려와 백제의 접경지역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첫째 성왕 28년(550)에 백제와 고구려가 공방을 벌린 곳이 도살성과 금현성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⁵²⁾ 도살성은 충북 괴산군 증평면의 이성산성에 비정되고,⁵³⁾ 금현성은 충북 진천에 비정되고 있다.⁵⁴⁾ 도살성은 고구려의 영

52)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 성왕 28년조에 “春正月 王遣將軍達已 領兵一萬 攻取 高句麗道薩城 三月 高句麗兵圍金峴城”이라 한 기사 참조.

53) 민덕식, 1983, 「고구려 도서현성고」, 『사학연구』 36(국사편찬위원회), 9쪽.

54) 정구복 외, 1997, 『역주 삼국사기』 4 주석편 하(韓國精神文化研究院), 251쪽. 이를 충남 연기군 전동면의 금성산성에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양기석, 앞의 글, 46쪽 주 56 참조).

역으로, 금현성은 백제의 영역으로 나온다. 괴산 방면이 고구려의 영역이라고 하면 고구려는 남한강을 타고 원주, 충주를 거쳐 괴산지역까지를 그 영역으로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도살성인 진천이 백제의 영역이었고 이곳을 고구려가 공격해 왔으므로 진천도 일단 백제의 동북국경선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시기는 늦어도 550년 이전이다.

둘째로 『일본서기』 현종기 3년(487)조에 나오는 다음의 기사이다.

是歲 紀生磐宿禰跨據任那 交通高麗 將西王三韓 整脩宮府 自稱神聖 用任那左魯那奇他甲背等 計殺百濟適莫爾解於爾林(爾林高麗地也) 築大山城 距守東道 斷運糧津 令軍飢困 百濟王大怒 遣領軍古爾解 內頭莫古解等 率衆就于帶山攻……⁵⁵⁾

이 기사는 고구려와 연통한 紀生磐宿禰가 爾林에서 백제 장군을 죽이고 대산성을 쌓았다는 것과 백제왕이 대노하여 대산성을 공격하였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爾林高麗地也’라는 세주의 기사이다. 이림은 흠명기 9년(548) 4월조에는 馬津城으로도 표기되고 있다. 이림의 위치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북 임실군으로 보는 견해, 전북 김제군 청하면으로 보는 견해, 충남 예산군 예산읍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는데 예산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⁵⁶⁾ 이는 현종 3년(487)까지 예산지역은 고구려의 영역이었고 그 후 어느 시기에 백제의 영역이 되었음을 알게 한다. 그렇다고 하면 백제와 고구려의 접경지역은 예산 북쪽의 어느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은 고고자료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한강유역 및 그 이남지역에서 고구려 유물이 출토된 유적으로는 한강 북쪽의 아차산 보루 및 시루봉 보루가 있고 한강 이남에는 몽촌토성 고구려 유적이 있다. 그리고 충청도 지역에는 대전 월평동유적과 청원 남성골 유적이 있다.

55) 『일본서기』 권15, 현종기 3년 시세조.

56) 이림의 위치에 대한 제 견해의 정리는 김태식, 1993, 『가야연맹사』(일조각), 244~249쪽 참조.

몽촌토성에서는 중국 집안 일대의 고구려 고분에서 주로 출토되는 나팔입 향아리와 원통형삼족기 등이 출토되었고 토성의 서남지구 고지에서 ㄱ자형의 온돌 고래와 굴뚝 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이 온돌 건물지는 층위상으로 보아 이 일대에서 가장 늦게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다.⁵⁷⁾ 몽촌토성은 아차산 보루보다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아차산의 것들보다 고급이라고 한다.⁵⁸⁾ 이렇게 볼 때 몽촌토성에는 한강유역에 주둔한 고구려군의 사령부가 위치하지 않았을까 한다.

아차산 제4보루 역시 구의동 보루와 마찬가지로 고구려군의 전초기지로 축조되었으며 6세기 중반에는 북진하는 제라연합군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기지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차산 4보루는 구의동 보루보다 10배 이상 크며 아차산 일원의 고구려 보루 중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後鄆都○冢, 冉牟冢, 支都冢, 下官, ○告 등이 새겨진 명문토기도 출토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아차산 제4보루는 아차산 보루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부대가 주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⁵⁹⁾

구의동 보루는 한강 북안의 높은 구릉에 입지하고 있어 한강 이남의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성벽 시설의 일부인 치도 이돌 두 성을 향하고 있어 강남의 백제지역을 염두에 둔 군사시설이 분명하다. 그런데 구의동 유적에서는 창을 비롯한 많은 양의 무기류가 출토되었으며 철 솔과 철 호가 온돌 아궁이에 걸린 채로 출토되었다. 이 구의동 보루는 고구려의 최전방 초소와 같은 기능을 한 군사요새로서 고구려의 남하 시에는 한강 이남의 백제지역을 관찰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제라연합군의 북진 시에는 적군의 공격을 일차적으로 저지하는 방어기지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⁶⁰⁾

아차산 일원의 고구려 보루성 유적의 연대에 대해서는 5세기 중반에서 6

57) 이상의 설명은 서울대학교박물관, 2000, 『특별전 고구려 : 한강유역의 고구려 요새』, 56~57쪽에 의거하였다.

58) 최종택, 1999, 앞의 글.

59) 이하의 설명은 서울대학교박물관, 2000, 앞의 책, 39~45쪽에 의거하였다.

60) 이하의 설명은 서울대학교박물관, 2000, 앞의 책, 39~45쪽에 의거하였다.

세기 중반으로 보는 견해와⁶¹⁾ 중심연대를 6세기 중반으로 보는 견해가⁶²⁾ 있다. 필자는 구의동 보루가 551년 백제군의 기습 공격에 의해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에서 후자의 견해를 따르는 바이다. 아차산 일원의 고구려 보루 유적의 연대가 6세기 중반이라고 하면 이때까지 이 지역은 고구려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셈이 된다.

대전 월평동 유적은 능선산에 설치된 방어시설인데 축조순서를 추정하면 목책①→목책②→성벽①→성벽②→월평산성(지정문화재인 현존 산성) 순서로 된다. 목책①은 5세기 후반, 성벽①은 6세기 후반, 성벽②는 7세기 전반이 중심연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목책①은 5세기 후반 웅진도성을 방어하기 위한 외곽방어시설인 柵으로 추정된다. 성벽①은 6세기대 고구려군에 의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방어시설이거나 아니면 6세기 후반부터 인접한 鷄足山城이 신라의 휘하에 들어가면서 그에 대한 방비책으로 백제에서 만든 방어시설일 가능성이 있다. 성벽②는 7세기대에 접어들어 성벽①을 보완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거나 7세기 중엽경 나당연합군과의 전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만든 것으로 우선 추정된다.⁶³⁾ 이 가운데 성벽①에서 고구려 유물이 나오고 있으므로 이 성벽은 고구려와 연관시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성벽의 축조 시기는 6세기 후반이다. 그렇다고 하면 성벽①은 비록 한시적이라고 하더라도 6세기대에 유성지역이 고구려의 지배 하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청원 남성골 유적은 금강의 북안에 위치한 유적으로서 한강 이남에서 발견된 최초의 고구려 성책 유적이다.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이 성책 유적은 내·외곽을 이중으로 돌린 목책과 내곽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차단하는 4개의

61) 최종택, 1998, 「고고학상으로 본 고구려의 한강유역 진출과 백제」, 『백제연구』 28집(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40~158쪽.

62) 박순발, 1999, 「고구려토기의 형성에 대하여」, 『백제연구』 29집(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4~16쪽.

63) 국립공주박물관·충남대학교박물관·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1999, 『대전 월평동유적』 국립공주박물관 학술조사총서 제8책, 217~218쪽.

호, 내곽 정상부 동문터의 석축벽체가 특징이다. 남성골 유적의 가마터에서는 고구려 계통의 토기가 나왔다. 이 가마터에서 나온 솥에 대해 방사성탄소연대를 측정할 결과 400~540년과 320~420년의 연대가 나왔다. 또 토기 가운데 원형의 구멍을 중심으로 주위에 6개의 구멍이 투공된 시루의 형식이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으로 편년되고 있다.⁶⁴⁾ 발굴보고서에서는 이 유적의 연대를 475년을 전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방사성탄소연대측정에서 얻어진 400~540년이라는 연대와 토기에서 추정되는 6세기 전반이라는 연대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남성골 지역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 경의 어느 시기까지 고구려의 영역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고고자료에서 얻어지는 이러한 해석과 문헌자료의 분석에서 얻어지는 사실을 연계시켜 보면 551년 이전까지 고구려는 한때는 예산읍에서 천안을 거쳐 청원을 지나 대전을 거쳐 괴산에 이르는 일대를 영역으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역이란 고정되어 있는 것이 힘의 우열에 의해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한다. 그래서 487년 이후 어느 시기에 예산지역은 백제의 영역으로 되었다. 그 시기는 성왕이 538년에 사비로 천도하면서 편제한 5방 가운데 하나인 서방의 治所가 예산군 덕산면의 봉수산성으로 비정되고 있으므로 늦어도 538년 이전임은 분명하다. 또 550년에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 벌어진 전투가 도살성=괴산과 금현성=진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이남에 위치한 대전지역과 청원지역도 550년 이전에 이미 백제의 영역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직산 위례성이 한성이라고 하면 475년 이후 어느 시기에 천안·직산지역도 백제의 영역 안에 들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면 551년까지 고구려의 남쪽 경계는 아산만에서 진위-안성-죽산에서 괴산으로 이어지고 동남쪽으로는 여주-충주-괴산으로 이어지는 선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이는 『삼국사기』 지리지 한주조에 나오는 군현이 고구려의 영역으로 나오는 것과 대략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64) 충북대학교박물관, 2004, 『청원 남성골 고구려유적』 조사보고 제104책, 296~297쪽.

2. 지배방식

그러면 고구려는 백제를 공격하여 새로이 영역으로 편입한 지역들을 어떻게 지배하였을까. 이를 추론하는데 단서가 되는 것이 551년에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로부터 빼앗은 지역이 6郡과 10郡으로 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⁶⁵⁾ 郡은 지방통치조직의 명칭인데 6군은 한강 하류지역에 설치되었고, 10군은 한강 상류에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郡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이 군은 백제 때 설치한 것인데 고구려가 그대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구려가 이 지역을 점령한 후 郡制를 실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고구려가 백제의 군제를 仍襲하였든, 독자적으로 군제를 실시하였든 간에 결과적으로 고구려는 이 지역에 군제를 실시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⁶⁶⁾

군 아래에 고구려가 현을 설치하였는지는 현재로서는 분명히 하기 어렵다. 고구려에서는 대성-성-소성 등으로 구분하여 지방관을 파견하였는데 대성에는 육살을, 성에는 처려근지를, 소성에는 가라달이나 루초를 파견하였다. 이렇게 보면 16군이라는 것은 16성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지역은 대략적으로 말하면 『삼국사기』 지리 2의 한주와 삭주의 관내 지역 중 임진강 이서와 소백산맥 이남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⁶⁷⁾

이렇게 한강유역에 16군을 설치한 고구려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에는 군대를 주둔시켜 피정복지역에 위압을 가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고고학적 자료에 의해 추정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이지만 한강 이북의 구의동과 아차산·용마산 일대 및 시루봉 유적에는 고구려 군사 유적이 집중되어 있

65)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2년조에 “是歲 百濟聖明王親率衆及二國兵(二國謂新羅任那也) 往伐高句麗 獲漢城之地 又進軍討平壤凡六郡之地 遂復故地”라 한 기사 및 『삼국사기』 권44, 열전제4, 거칠부전에 “居柒夫等乘勝取竹嶺以外高峴以內十郡”이라 한 기사 참조.

66) 노태돈, 1999, 『고구려사연구』(사계절), 275~277쪽.

67) 노태돈, 1999, 위의 책, 275쪽.

다. 이 가운데 구의동 보루 유적은 최소단위 부대가 주둔한 초소이고 아차산 제4보루는 아차산 일대의 보루들을 총괄하는 성격의 부대였다. 시루봉 유적은 아차산 제4보루 보다는 하위의 부대가 주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한강유역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한 보루들로서 고구려는 이곳에 군사들을 배치하였던 것이다. 또 대전 월평동의 유적과 청원 남성골 유적도 군사적 성격의 시설이므로 역시 일정한 군대가 주둔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고구려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주요 거점성들에는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였지만⁶⁸⁾ 그 휘하의 성들에는 재지유력자들을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정복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이 지역에 두어진 모든 군현에 반드시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방증해 주는 것이 당이 백제를 멸망시킨 후 백제지역을 지배하는 방식이다.

至是乃以其地分置熊津馬韓東明等五都督府 各統州縣 立其酋渠爲都督
刺史及縣令⁶⁹⁾

이 기사는 당이 신라와 더불어 백제를 멸망시킨 이후 5도독부-37주-51현제를 실시하면서 도독부의 도독, 주의 자사, 현의 현령에 그 지역의 酋渠=유력자들을 임명하고 있다. 즉 당은 사비부성에 주둔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여타의 지역에는 당에 복종하는 유력자들을 지방관으로 등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지역민들을 다스리도록 하였던 것이다. 고구려도 한강유역을 점령한 후 주요 거점성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역에는 그 지역의 유력자들을 지방관으로 등용하고 그들을 통해 조세를 거두어들이거나 필요한 노동력을 동원하거나 치안을 유지하거나 하는 일들을 처리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렇게 군사상 요충지에 군대를 주둔시키거나 거점성 휘하의 성들에 재지 유력자들을 등용하였을 경우 이들을 효율적으로 총괄하기 위한 상위의 조직

68) 중원고구려비에 나오는 고모루성수사가 그 예가 될 것이다.

69) 『구당서』 권199 상, 열전제149,동이 백제전.

이 필요하다. 이 상위 조직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한산군과 국원성과 북한산군이다. 한주 휘하의 1주 1소경 27군 가운데 대다수의 군현들의 연혁은 단순히 ‘本高句麗○○郡 또는 ○○縣’으로 나오지만 이 세 곳만은 “新羅取之” 또는 “眞興王爲州置軍主”라 하여 신라의 영역이 된 사유가 기록되어 있다. 이는 이 세 곳이 고구려 당시에도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한주=한산군=한성은 백제 당시의 수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고구려 점령기에도 주요하게 생각되었을 것이다.⁷⁰⁾ 북한산군은 ‘平壤’이라는 異稱에서 미루어 중요한 거점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국원성의 경우 국원은 고구려에서 수도지역을 의미한다는 것과⁷¹⁾ 중원고구려비가 이곳에 세워진 것에 의해 그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한성, 북한산군, 국원성이 주요한 거점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가 한강유역의 신점령지를 크게 세 권역으로 나누어 편제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권역은 신라가 고구려로부터 빼앗은 10군이다. 이 10군은 竹嶺以外 高峴以內의 지역으로서 주로 남한강과 북한강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어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위치상에서 볼 때 이 지역들을 통괄하는 곳은 충주의 국원성이 아니었을까 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 권역은 백제가 차지한 지역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일본서기』 흠명기에 나오는 다음의 기사이다.

百濟聖明王親率衆及二國兵 往伐高麗 獲漢城之地 又進軍討平壤凡六郡之地 遂復故地⁷²⁾

70) 이는 창녕신라진흥왕척경비의 “漢城軍主”에서 보듯이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한 후 신주를 두고 州治를 한성으로 한 것에서도 입증되리라 본다.

71) 임기환, 2002, 「고구려·신라의 한강유역 경영과 서울」, 『서울학연구』 18집(서울학연구소), 27쪽

72)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2년조.

이 기사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한성지지를 획득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평양과 무릇 6군의 땅을 토평하였다는 것이고, 셋째는 첫째와 둘째의 지역을 모두 합하여 고지를 회복하였다는 것이다. 종래에는 한성과 평양도 6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필자는 獲漢城之地와 凡六郡之地가 대응되고 있다는 점에서 6군지지와 한성지지는 분리해 보아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보면 ‘平壤凡六郡之地’는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6군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범위로 묶을 수 있고, ‘漢城之地’의 경우 비록 郡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성과 그 주변의 여러 군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6군지지의 중심거점성은 평양=북한산군이 되고, 한성지지의 거점성은 한성이 된다.

평양=북한산군을 거점성으로 하는 6군의 위치에 대해서는 신라의 북진 경로를 고려하여 漢山郡, 北漢山郡, 栗木郡(과천), 主夫吐郡(부천), 皆次山郡(죽산), 述川郡(여주)로 대응시켜 주로 한강 이남지역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⁷³⁾ 평양을 재령으로 보고 신라가 경덕왕 21년(762)에 涿西 지방에 설치한 6성, 즉 五關郡(서흥), 栖岳郡(봉산), 재령, 수안, 해주, 곡산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⁷⁴⁾ 그러나 ‘進軍討平壤凡六郡之地’은 백제군이 평양=양주로 진군하여 이를 격파하고 다시 북으로 올라가 6군의 땅을 차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6군은 평양=양주 이북에 있었던 것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6군의 위치를 교하군, 내소군, 견성군, 개성군, 송악군, 우봉군으로 추정해 둔다. 그리고 한성이 관장한 지역은 당연히 한강 이남지역에서 찾아야 되므로 그 지역은 한강 이남에서 한주의 남쪽 경계선 이북에 위치한 해구군, 장제군, 울진군, 沂川郡, 이산군, 수성군, 당은군, 백성군 등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 세 거점성 가운데 초기에 핵심이 된 거점성은 한성이었고 이 가운데 주둔군 사령부가 있었던 곳은 몽촌토성이었던 것 같다. 평지성인 풍납토성은

73) 임기환, 2002, 「고구려·신라의 한강유역 경영과 서울」, 『서울학연구』 18집(서울학연구소), 14쪽.

74) 양기석, 2005, 「5~6세기 백제의 북계-475~551 백제의 한강유역 영유문제를 중심으로-」, 『박물관기요』20(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48쪽.

475년 고구려의 화공을 받아⁷⁵⁾ 성내의 주요 건물들이 불타버렸지만 산성적 성격을 가지는 몽촌토성=남성은 크게 저항하지 않고 항복하여 성내가 상대적으로 보존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몽촌토성에서 나오는 고구려 유물로 보았을 때 사용 기간은 그다지 오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고 하면 고구려는 한성을 함락시킨 후 얼마 동안 몽촌토성을 사령부로 사용하다가 그 후 어느 시기에 다른 거점성으로 중심지를 옮겼을 수도 있다.

그러면 새 중심거점성은 어디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한강 이북지역에서 위치한 아차산 보루, 구의동 보루, 시루봉 보루 등 고구려계 군사 유적이다. 이는 고구려가 한강 이남보다는 한강 이북지역을 더 중시하였음을 보여준다.⁷⁶⁾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중심 거점성은 북한산군이 아니었을까 한다. 북한산군은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점령한 후 설치하였다. 그런데 『삼국사기』 지리2와 지리4에는 北漢山郡의 이칭으로 평양이 나온다.⁷⁷⁾ 평양은 427년 이후 고구려 왕도의 명칭이므로 북한산군이 평양으로 불렸다는 것은 고구려가 이 지역을 매우 중시하였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때의 평양은 수도 평양과 구분하기 위해 南平壤으로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남평양의 위치에 대해 황해도 재령군 신원의 장수산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⁷⁸⁾ 그러나 재령은 지리지에는 한성으로 나오지 평양으로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재령을 551년 당시의 남평양으로 볼 수 없다. 필자는 남평양은 북한산군으로서 오늘날의 양주지역으로 보는 바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서기 흠명기에 551년에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성과 평양성을 차지하였다가 다시 한성과 평양성을 포기하였다고 한 사실이다. 여기에서 한

75) 『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 개로왕 21년조에 “麗人分兵爲四道夾攻 又乘風縱火 焚燒城門”이라 한 기사 참조.

76) 임기환, 2002, 「고구려·신라의 한강유역 경영과 서울」, 『서울학연구』 18집(서울학연구소), 25~26쪽.

77) 『삼국사기』 권35, 지리2의 “漢陽郡本高句麗北漢山郡(一云平壤) 眞興王爲州置軍主”와 권37, 지리4의 “北漢山郡(一云平壤)”이라 한 기사 참조.

78) 손영중, 1990, 『고구려사』(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74~187쪽 ; 양기석, 2002, 앞의 글, 48~49쪽.

성은 재령지역에 두어졌던 고구려 한성이 아니라 백제의 수도 한성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평양도 고구려의 평양이 아니라 백제지역에 두어졌던 평양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로 『삼국사기』 지리2와 지리4에는 북한산군에 대한 이칭으로서 평양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지만 재령에 두어진 한성의 이칭으로는 평양은 없고 漢忽, 息城, 乃忽 등이⁷⁹⁾ 있을 뿐이다. 이는 재령의 한성이 평양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로 신라 헌덕왕대에 김현창의 아들 김범문이 반란을 일으킨 후 도읍하려고 한 곳인 평양이 한산주에 위치하였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다음의 기사이다.

春正月 憲昌子梵文 與高遼山賊壽神等百餘人 同謀叛 欲立都於平壤 攻北漢山州 都督聰明 率兵捕殺之(平壤今楊州也 太祖祭莊義寺祭文 有高麗舊壤 平壤名山之句)⁸⁰⁾

이 기사에 의하면 김범문이 도읍하려고 한 평양은 지금의 양주이다. 또 莊義寺는 신라 태종 무열왕이 당나라 소정방이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사실을 알려준 장춘랑과 파랑의 명복을 빌기 위해 한산주에 세운 절인데⁸¹⁾ 이 祭文에 보이는 高麗舊壤은 한산주가 한때 고구려의 땅이었다는 것과 평양이 바로 이곳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 등에서 미루어 볼 때 남평양은 고구려의 북한산군의 이칭으로 사용되었고 오늘날의 양주지역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⁸²⁾ 고구려가 북한산군을 (남)평양으로 불렀다는 것은 북한산군이 그만큼 중시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구려는 처음에는 몽촌토성에 주둔군 사령부를 두었다가 얼마 지

79) 『삼국사기』 권37, 잡지, 지리4 고구려군현조.

80)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헌덕왕 17년조.

81)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태종무열왕 6년조.

82) 다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인용된 『고전기』에 나오는 남평양은 백제 근초고왕이 372년에 평양성을 공격한 것을 남평양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임기환, 2004, 「고구려의 副都 한성과 지방통치」, 『한국고대중세 지방제도의 제문제』(집문당), 17~20쪽 참조.

나지 않아 북한산군으로 거점을 옮기고⁸³⁾ 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강 북쪽에 아차산 보루들을 비롯하여 많은 군사시설들을 설치하지 않았을까 한다.

IV 고구려의 한강유역 상실

1. 백제·신라·가야연합군의 형성

475년 한성을 함락당하고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는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무엇보다도 한강유역의 상실로 경제기반이 크게 축소되었기 때문에 백제는 축소된 경제기반을 확대하고 어려운 농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하였다. 이에 무령왕은 遊食者들을 귀농시키고 타국으로 도망간 자들을 추쇄하여 농업노동력을 확보하고 또 제방을 完固히 하여 농업생산력을 높이고 농경지를 확대하였다.⁸⁴⁾ 그리고 지방통치 조직인 담로에 자제종족을 파견하여 왕권 중심의 지배체제를 강화하였다. 또 한강유역의 상실로 축소된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가야지역으로 진출하여 512년에는 上哆唎, 下哆唎, 沙陀, 牟婁의 4현을 점령하고 513년에는 己汶과 帶沙를 점령하였다.⁸⁵⁾ 기문은 남원에, 대사는 섬진강 하구의 하동에 비정된다. 이렇게 확보한 영역에 백제는 郡丞과 城主를 파견하여⁸⁶⁾ 직접 지배하는

83) 북한산군, 즉 양주지역에는 고고학 자료에서 볼 때 아직 고구려 유물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북한산군을 평양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임기환, 2004, 위의 글, 19쪽). 그러나 고고학 자료 문제는 앞으로의 조사·발굴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다.

84)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 무령왕 10년조의 “春正月 下令完固隄防 驅内外游食者 歸農”이라 한 기사 참조.

85) 『일본서기』 권17, 계체기 6년, 8년조.

86)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4년 동11월조에 “聖明王聞宣勅已 歷問三佐平内頭及諸臣

방식을 취하였다. 이리하여 무령왕대는 한강유역의 상실로 말미암은 축소된 경제기반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성왕은 무령왕이 다져놓은 정치적 경제적 안정 기반 위에서 사비천도를 단행하였다. 천도 이후 성왕은 16관등제를 정비하여 관료들의 상하 질서체계를 확립하였고, 노동력과 군사력의 확보를 위해 인구과약의 업무를 담당하는 黠口部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지방에 대한 지배를 체계적으로 하고 지방세력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래의 22담로제를 개편하여 5方-37郡-200城이라고 하는 지방통치조직을 새로이 편제하였다. 이리하여 지방통치조직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서열화되어 백제의 지방통치조직은 체계성을 갖추게 되었다.

성왕은 사비로 천도하기 이전까지는 가능하면 정치를 안정시키는 방향에서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였고 대외적으로 고구려와의 충돌은 가급적 삼가는 정책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고구려가 523년과 529년에 공격해 오자 이를 방어하였을 뿐 고구려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지 않았다. 그러나 천도 2년 후인 540년에 성왕은 고구려 牛山城을 공격하는 등⁸⁷⁾ 공세적 입장을 취하였다. 성왕이 이렇게 고구려에 대한 강경 대응책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한반도 내에서는 신라 및 가야와, 밖으로는 남조의 양 및 왜와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여기서는 성왕이 주변 諸國과의 우호관계를 맺어 가는 모습을 정리해 두기로 한다.

먼저 가야세력과의 우호관계 확립을 보기로 한다. 백제가 가야세력과의 우호관계를 수립하고자 할 때 가장 걸린 문제는 백제가 섬진강 유역으로 진출함에 따라 생겨난 양 세력 사이의 긴장의 고조였다. 특히 백제의 多沙津 영유는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일본서기』 계제기 23년조의 다음의 기사이다.

日 詔勅如是 當復何如 三佐平等答曰 在下韓之我郡令城主 不可出之……”라 한 기사 참조.

87) 『삼국사기』권26, 백제본기, 성왕 18년조에 “秋九月 王命將軍燕會 攻高句麗牛山城 不克” 기사 참조.

春三月 百濟王謂下哆利國守穗積臣押山臣曰 夫朝貢使者 恒避鳴曲(謂海中嶋曲碕岸也 俗云美佐祢) 每苦風波 因茲濕所資全壤無色 請以加羅多沙津爲臣朝貢津路 是以押山臣爲請聞奏 是月 遣物部伊勢連父根 吉士老等 以津賜百濟王⁸⁸⁾

이 기사에는 왜가 다사진을 백제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이는 『일본서기』 찬자의 왜곡과 윤색이고 실제의 모습은 백제가 이 지역을 차지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시기는 무령왕 13년(513)이다. 그러나 백제의 섬진강 유역으로의 진출은 大加耶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대가야는 이 지역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지만⁸⁹⁾ 백제가 들어주지 않자 두 가지 대응 조치를 취하였다.

하나는 백제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체계를 갖추는 것이었다. 『일본서기』 계체기 8년(514)조에 대가야가 子呑과 帶沙에 성을 쌓아 滿奚와 연결시키고 동시에 烽候와 邸閣을 두었다는 것과 爾列比와 麻須比에 성을 쌓아 麻且奚와 推封과 연결시키고 사졸과 병기를 모았다고 한 것이 그것을 보여준다.⁹⁰⁾

다른 하나는 신라와의 親好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삼국사기』 법흥왕 9년(522)조에는 가야국왕이 청혼을 하자 법흥왕은 이찬 비조부의 누이를 시집보낸 것으로 나온다.⁹¹⁾ 대가야가 신라에 혼인을 요청한 것은 백제에 대항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였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일본서기』의 다음의 기사이다.

於是加羅王謂勅使云 此津從置官家以來 爲臣朝貢津涉 安得輒改賜隣

88) 『일본서기』 권17, 계체기 23년조.

89) 『일본서기』 권17, 계체기 7년조에 “夏六月 …… 別奏云 伴跛國略奪臣國已汶之地 伏請天恩 判還本屬 …… 是月 伴跛國遣戡支 獻珍寶 乞已汶之地 而終不賜國”이라 한 기사 참조.

90) 『일본서기』 권17, 계체기 8년조에 “三月伴跛築城於子呑帶沙 而連滿奚 置烽候邸閣 以備日本 復築城於爾列比麻須比 而組麻且奚推封 聚士卒兵器 以逼新羅 駢略子女 剝掠村邑 凶勢所加 罕有遺類 夫暴虐奢侈 惱害侵凌 誅殺尤多 不可詳載”이라 한 기사 참조.

91)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법흥왕 9년조에 “春三月 加耶國王遣使請婚 王以伊滄比助夫之妹送之”이라 한 기사 참조. 동일한 내용이 『신증동국여지승람』 고령현 건치 연혁조에 나온다.

國 違元所封限地 勅使父根等因斯難以面賜 却還大島 別遣錄史果賜扶
余 由是加羅結黨新羅 生怨日本 加羅王娶新羅王女 遂有兒息⁹²⁾

이 기사에 의하면 대가야는 백제가 차지한 다사진을 되찾으려 하였지만 여의치 못하자 신라와 결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라왕녀를 맞이하였던 것이다. 이는 대가야가 신라를 끌어들이며 섬진강 유역으로 진출하는 백제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신라는 왕녀를 따라간 종들의 변복 사건을 꼬투리로 하여 혼인관계를 파기하였다.⁹³⁾ 이는 신라가 대가야와 혼인관계를 맺은 것이 가야지역으로의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한 것임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신라는 가야의 3성과 북쪽 경계의 5성을 함락하고 가야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가중하면서 金官加耶의 多多羅, 須那羅, 和多, 費智 등 4촌을 영역으로 편입하였다.⁹⁴⁾

신라의 적극적인 가야지역으로의 진출은 대가야에게 커다란 압박이 되었고 백제는 이러한 상황을 활용하여 가야에 대한 友好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백제가 가야와 和好하려고 할 때 늘 문제가 되었던 것은 섬진강 유역에 설치된 郡舍과 城主의 존재였다. 이들의 존재는 가야로 하여금 백제의 의도에 의심을 가지게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대가야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거론하였지만 성왕은 강직 고구려에 대항하고 또 신라가 멸망시킨 南加羅·卓淳·喙己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군령과 성주를 둘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섬진강 유역을 자국의 영토로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양 세력 사이의 갈등은 성왕 19년(541)과 22년(544) 두 번에 걸쳐

92) 『일본서기』 권17, 계체기 23년조.

93) 『일본서기』 권17, 계체기 23년조의 “新羅初送女時 并遣百人爲女從 受而散置諸縣 令着新羅衣冠 阿利斯等嗔其變服 遣使徵還 新羅大羞 翻欲還女曰 前承汝聘 吾便許婚 今既若斯 請還王女”라 한 기사 참조.

94) 『일본서기』 권17, 계체기 23년조에 “上臣抄掠四村(金官背伐安多委陀 是爲四村 一本云多多羅須那羅和多費智爲四村也) 盡將人物 入其本國 或曰多多羅等四村之所掠者 毛野臣之過也”이라 한 기사 참조.

개최된 ‘사비회의’에서 일단 정리되었다. 사비회의는 성왕이 신라에 대응하면서 신라가 멸망시킨 南加羅·卓淳·曷己吞 등을 부흥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사비회의에 가야제국은 대표들을 파견하였다. 이 모임에서 성왕은 백제와 가야는 근초고왕-근구수왕대부터 자제와 부형과 같은 친호관계를 맺은 것을 강조하고 군령과 성주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또 신라에 대응할 세 가지의 공동 대책을 제시하였다. 세 가지 대응책이란 왜에 원병을 요청한다는 것, 南韓에 군령과 성주를 그대로 두어 고구려와 신라의 압박에 대항한다는 것, 친신라적인 행동을 하는 길비신 등을 왜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 등이었는데 가야제국은 이 제안에 찬동하였다.⁹⁵⁾ 이로써 백제와 가야제국과의 우호관계는 완결되어졌으며 그 결과 가야는 551년 삼국연합군 형성에 동참하였던 것이다.

한편, 백제와 신라와의 협력 관계는 고구려의 압박이 강할수록 돈독하였다. 475년에 백제 개로왕이 고구려의 공격을 받았을 때 신라는 1만의 원군을 보내 백제를 도와주었다. 이러한 共守관계는 웅진천도 이후에도 지속되어 동성왕은 7년(485)에 신라에 사신을 보내 빙문을 하였고 15년(493)에는 혼인관계를 맺었다.⁹⁶⁾ 이리하여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의 공격에 대해 공동방어 전선을 펼쳤다.⁹⁷⁾

그런데 동성왕은 23년(501) 七月에 탄현에 책을 설치하여 신라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⁹⁸⁾ 동성왕의 이러한 조치는 17년(495) 이후 어느 시기에 백제와 신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것을 의미한다. 그 갈등의 요인으로 생각

95)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5년조에 “於是 吉備臣旱岐等曰 大王所述三策 亦協愚情而已 今願歸以敬諮日本大臣(謂在任那日本府之大臣也)安羅王加羅王……”이라 한 기사 참조.

96) 동일한 내용이 『삼국사기』, 신라본기, 소지왕 15년조에 “春三月 百濟王牟大 遣使請婚 王以伊滄比智女送之”라 나온다.

97)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 동성왕 16년조에 “秋七月 高句麗與新羅戰薩水之原 新羅不克 退保犬牙城 高句麗圍之 王遣兵三千救 解圍”라 한 기사 참조.

98)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 동성왕 23년조에 “七月 設柵於炭岷 以備新羅”라 한 기사 참조.

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기 신라가 마립간체제를 점차 극복하고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갖추면서 국력이 막강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백제는 신라와 비록 우호관계를 맺었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닐까 한다.

신라에 대한 백제의 긴장관계는 무령왕대를 거치면서 점차 해소되었다. 법흥왕이 8년(521)에 梁에 사신을 보낼 때 백제 사신이 매개의 역할을 해주었다고 한 것이⁹⁹⁾ 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성왕대에 와서도 이어져 성왕은 3년(525)에 신라와 교빙하여 우호를 다졌고 541년에 사신을 보내 講和하자 신라가 응하였다. 그 결과 548년에 고구려가 백제의 독산성을 공격해왔을 때 신라는 군대를 파견하여 고구려의 공격을 물리치는데 동참하였던 것이다.¹⁰⁰⁾

그러나 국제관계는 언제나 자국의 이익 추구가 우선되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6세기 전반기의 신라의 행동이다. 이 시기 백제와 고구려는 550년 1월에서 3월에 걸쳐 도살성과 금현성을 둘러싸고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이고 있었다.¹⁰¹⁾ 541년에 맺어진 화호관계와 548년의 共守활동에서 미루어 볼 때 신라는 고구려의 공격을 받은 백제에 대해 원군을 보내어 도와주어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 진흥왕은 군사지원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국이 되풀이된 공방전으로 매우 困乏해진 국면을 이용하여 도리어 도살성과 금현성을 모두 차지하였다.¹⁰²⁾ 이는 백제와 고구려가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힘의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던 신라가 실리를 추구해 나가는 모습을 잘

99) 『양서』 권54, 열전제48, 諸夷 신라전에 “其國小 不能自通使聘 普通二年 王募名秦始使 使隨百濟 奉獻方物”이라 한 기사 참조.

100)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 성왕 26년조에 “春正月 高句麗王平成與滅謀 攻漢北獨山城 王遣使請救於新羅 羅王命將軍朱珍 領甲卒三千發之 朱珍日夜兼程 至獨山城下 與麗兵一戰 大破之”이라 한 기사 참조.

101)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 성왕 28년조에 “春正月 王遣將軍達已 領兵一萬 攻取高句麗道薩城 三月 高句麗兵圍金峴城”이라 한 기사 참조.

102)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진흥왕 11년조에 “王乘兩國兵疲 命伊滄異斯夫 出兵擊之 取二城 增築 留甲士一千戍之”라 한 기사 참조.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라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고구려는 물론이고 백제도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상황이 고려되었던 것 같다. 하나는 고구려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라에 대해 반격을 가하게 되면 적을 둘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섰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이 시기 성왕은 한강유역을 되찾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러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라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성왕은 신라와의 충돌을 피하지 않았을까 한다. 한편, 신라도 백제와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삼국 사이의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어 자국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백제의 입장에 동조하였던 것 같다. 이리하여 양국의 우호관계는 지속되었고 그 결과 신라는 551년의 삼국연합군 형성에 동참하였던 것이다.

2. 고구려의 한강유역 상실

신라·가야와 연합하여 군사동맹을 맺은 백제는 고구려 공격을 준비하였다. 그런데 군대를 움직일 때는 군수물자도 많이 필요하다. 백제는 자체적으로 군수물자를 준비함과 동시에 왜에서도 일정하게 지원을 받았다. 『일본서기』에 550년에 왜가 矢三十具를 보냈다는 것과 551년 3월에 麥種 1千斛을 보냈다고 한 것 등이¹⁰³⁾ 이를 보여준다.

이렇게 준비를 마친 삼국연합군은 고구려 공격에 나섰다. 삼국연합군의 고구려 공격 기사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진흥왕 14년(551) 3월조에, 고구려본기에는 양원왕 7년(551) 추9월조에 기록되어 있고, 『일본서기』에는 흠명기 12년(551) 3월조의 ‘是歲’에 나온다. 반면에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103)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1년조에 “朕聞北敵強暴 故賜矢三十具 庶防一處”라 한 기사와 흠명기 12년조에 “春三月 以麥種一千斛賜百濟王”이라 한 기사 참조.

이 공격에 대한 기사는 없다. 이 기사들에 의하면 삼국연합군의 공격 시기는 551년 3월이나 9월이 되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고구려의 상황과 연관시켜 볼 때 후술하는 바와 같이 551년 9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삼국연합군이 551년 9월을 공격 시점으로 잡은 것은 고구려의 상황과 긴밀한 관련을 갖는 것 같다. 이 시기 고구려에서는 해랑법사가 거칠부에게 “我國政亂 滅亡無日”이라 한 말에서¹⁰⁴⁾ 보듯이 심각한 정치적 내분이 일어났다. 내분의 실상은 『일본서기』 흠명기 6년조와 7년조에 나오는 양원왕의 즉위에 따른 왕위계승분쟁 기사이다.¹⁰⁵⁾ 이 기사는 545년에 고구려 내에서는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羸群派와 細群派가 크게 대립하고 그 결과 추군과가 세군과를 물리친 후 自派의 왕자를 왕으로 옹립하였음을 보여준다.¹⁰⁶⁾ 그 결과 양원왕을 옹립한 추군과가 정치적 실권을 잡게 되면서 세력교체가 일어나 귀족사회를 크게 동요시켰고 해랑법사처럼 고구려를 이탈하는 세력들도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고구려가 왕위계승분쟁을 거치면서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을 때 돌궐이 공격해 왔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다음의 기사이다.

秋九月 突厥來圍新城 不克 移攻白巖城 王遣將軍高紇領兵一萬 拒克之 殺獲一千餘級 新羅來攻取十城¹⁰⁷⁾

104) 『삼국사기』 권44, 열전4, 거칠부전.

105) 『일본서기』 권제19, 흠명기 6년과 7년의 是歲條.

흠명기 6년 : 是歲 高麗大亂 被誅殺者衆(百濟本紀云 十二月甲午 高麗國細群與羸群 戰于宮門 伐鼓戰鬪 細群敗 不解兵三日 盡捕誅細群子孫 戊戌 狍鵠香岡上王薨也).

흠명기 7년 : 是歲 高麗大亂 凡鬪死者二千餘人(百濟本紀云 高麗以正月丙午 立中夫人子爲王 年八歲 狍王有三夫人 貞夫人無子 中夫人生世子 其舅氏羸群也 小夫人生子 其舅氏細群也 及狍王疾篤 細群羸群各欲立其夫人之子 故細群死者二千餘人也).

106) 이에 대한 정리는 노태돈, 1992, 「고구려의 한수유역 상실의 원인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1(한국사연구회) 참조.

107) 『삼국사기』 권19, 고구려본기, 양원왕 7년조.

돌궐은 蠕蠕의 被服屬民으로서 알타이산맥 서쪽에서 鍛鐵業에 종사해 왔다. 이 돌궐은 6세기 전반경에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는데 555년에 연연을 완전히 멸망시키면서 塞北의 패자로 군림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551년의 돌궐의 침입 기사는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양왕왕 7년(551)에는 연연이 버티고 있었으므로 돌궐의 세력이 요하 이동의 신성에까지 침공해 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¹⁰⁸⁾

그러나 이 기사는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상실할 당시의 대외적 관계를 보여주는 유일한 기사로서 이 기사를 쉽게 버릴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기사는 돌궐이 아닌 다른 어떤 세력이 이때 고구려의 서부 방어선을 위협한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남쪽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할 고구려의 힘을 분산시키는 작용을 하였는데 뒤이어 돌궐이 침략해 와서 보다 큰 위협이 되자 앞 시기의 사실을 뒤의 돌궐의 사실과 연결시켜 551년에 돌궐이 침입해 온 것으로 정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¹⁰⁹⁾ 어쨌든 돌궐로 표현되는 세력의 침입은 고구려로서는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이에 고구려는 서북 방면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었고 그 결과 남부전선에서의 방어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지 않았을까 한다.

백제 성왕은 고구려가 처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551년에 신라·가야와 연합군을 형성하여 고구려 공격에 나섰다. 삼국연합군의 공격 모습은 『일본서기』와 『삼국사기』 居柒夫傳에서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A-1. 是歲 百濟聖明王親率衆及二國兵(二國謂新羅任那野) 往伐高句麗 獲漢城之地 又進軍討平壤 凡六郡之地 遂復故地¹¹⁰⁾

A-2. (眞興王) 十二年辛未 王命居柒夫及仇珍大角滄 比台角滄 耽知迺滄 比西迺滄 奴夫波珍滄 西力夫波珍滄 比次夫夫阿滄 未珍夫夫阿滄等八將軍 與百濟侵高句麗 百濟人先攻破平壤 居柒夫等乘勝 取竹嶺以外高峴以內十郡¹¹¹⁾

108) 돌궐의 성장과 고구려 공격에 대한 정리는 노태돈, 1999, 『고구려사연구』(사계절), 402~408쪽 참조.

109) 노태돈, 1999, 위의 책, 403~404쪽.

110)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2년조.

이 기사에 의하면 고구려에 대한 공격은 두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백제군은 한강 하류지역으로 진격하고 신라군은 한강 상류지역으로 진격한 것이다. 가야군은 어디로 진격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백제와 보조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공격은 ‘百濟人先攻破平壤’이라 한 것에서 보듯이 백제군이 신라보다 먼저 진격해 들어갔다. 한강 하류지역으로 진군해 간 백제군은 먼저 漢城을 차지한 후 다시 진군하여 한강을 건너 平壤城을 공격하고 6군을 빼앗았다. 이리하여 백제는 475년에 고구려에 빼앗긴 고지를 회복하였다.

이 시기 백제군의 공격은 매우 신속하게 또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추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한강유역에 설치되었던 고구려 堡壘유적의 廢棄 상황이다. 구의동 보루 유적은 당시의 생활용기와 무기들을 그대로 남겨둔 채로 폐기되었다. 이는 이 보루에 주둔한 고구려 군사들이 무기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퇴각하였음을 보여주는데 고구려 군대의 이런 황급한 퇴각은 백제군이 이 보루를 기습 공격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아차산 4보루에서는 파손된 것을 제외하고는 무기류도 거의 없으며 온돌아궁이에 철 솔이 걸린 채로 출토된 예가 없다. 아차산 보루는 구의동 보루에서 직선으로 5km 가량 떨어져 있으며 산악지형이므로 도보로는 2시간 걸리는 거리이다. 이는 구의동 보루가 적군의 기습을 받았을 때 아차산 4보루의 군사들이 무기와 장비를 수습하여 퇴각할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¹¹²⁾ 그래서 구의동 보루가 기습공격을 받아 아차산 4보루의 군대들은 무기와 철솔 등 중요한 장비를 가지고 철수하였고 그 결과 이 유적에서는 아무런 유물이 남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신라 진흥왕은 고구려 공격에 앞서 551년 정월에 연호를 開國으로 바꾸고 3월에 娘城=청주로 순수를 하였다.¹¹³⁾ 이 순수는 진흥왕이 攝政을 끝

111) 『삼국사기』 권44, 열전제4, 거칠부전.

112) 이하의 설명은 서울대학교박물관, 2000, 앞의 책, 46~53쪽에 의거.

113)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진흥왕 12년조에 “春正月 改元開國 三月 王巡狩次娘

내고 親政을 하게 되자 연호를 개국으로 개칭한 것과 연관되는 것 같다. 이 과정에서 청주지역으로 순수를 행한 것은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 군대 동원을 독려하는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 한다. 이렇게 준비를 마친 신라는 551년 9월에 고구려 공격에 가담하였다. 이때 공격군을 거느린 장군은 거칠부와 仇珍 大角滄을 비롯한 9명의 장군이였다. 이들이 거느린 신라군은 백제군이 고구려군을 격파하여 한성과 평양을 점령한 승세를 타서 竹嶺을 넘어 진격하여 ‘竹嶺以外高峴以內’의 10군을 차지하였다.¹¹⁴⁾ 이리하여 고구려는 475년 이후 지배하고 있던 한강 유역을 상실하고 말았다.

V

백제의 한강 하류지역 상실

1. 羅麗연합과 백제공격

551년 9월 삼국연합군은 성공적으로 군사작전을 마쳤다. 그러나 이 공격이 성공되면서 삼국의 역학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삼국유사』 진흥왕조에 나오는 다음의 기사이다.

第二十四眞興王 卽位時年十五歲 太后攝政 太后乃法興王之女子……
承聖三年(554)九月 百濟兵來侵於珍城 掠取人男女三萬九千 馬八千匹
而去 先是 百濟欲與新羅合兵 謀伐高麗 眞興曰 國之興亡在天 若天未厭
高麗 則我何敢望焉 乃以此言通高麗 高麗感其言 與羅通好 而百濟怨之

城”이라 한 기사 참조.

114) 가야의 경우 이 전쟁에서 얻은 소득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가야가 고구려와 국경을 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미루어 볼 때 고구려의 땅을 차지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 대신 가야는 참전의 대가로 백제로부터 선진문물을 받지 않았을까 추정해 둔다.

故來爾¹¹⁵⁾

이 기사 내용은 두 개의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554년 9월에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공격의 원인이 함께 고구려를 치자는 백제의 요청을 신라가 거부하고 고구려와 통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사건은 연장선상에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두 번째의 사건이 앞선다. 여기서는 두 번째의 사건을 먼저 정리해 두기로 한다.

두 번째 사건의 핵심은 백제가 신라에게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고자 제안한 것이다. 제안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미 한강 하류와 이북지역을 점령한 성왕의 입장에서 미루어 볼 때 내친 김에 더 북진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왜냐하면 성왕으로는 남평양=양주 이북의 6군의 땅만 점령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성왕이 재임 중에 가장 내세웠던 先王이 근초고왕과 근구수왕이었다는 사실이다. 근초고왕과 근구수왕대에 백제는 북으로는 황해도 新溪지역까지, 남으로는 영산강 유역까지를 영역으로 편입하고 가야세력을 영향권 내에 넣었다. 성왕은 이러한 시대의 재현을 꿈꾸었던 것 같다. 그래서 성왕은 사비로 천도하면서 국호를 南扶餘로 고쳐 扶餘族의 정통성 계승을 표방하였고 가야에 대해서는 백제로부터 이탈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교섭을 강화한 후¹¹⁶⁾ 마침내 고구려에게 빼앗겼던 한강유역을 551년에 되찾게 되자 지금이야말로 두 왕의 시대를 재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였던 것 같다. 승리의 기세를 몰아 고구려를 밀어붙이면 예성강을 넘어 황해도 깊숙이까지 진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115) 『삼국유사』 권1, 기이1, 진흥왕조.

116)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2년조에 “聖明王曰 昔我先祖速古王貴須王之世 安羅加羅 卓淳旱岐等 初遣使相通 厚結親好 以爲子弟 冀可恒隆 …… 乃謂任那曰 昔我先祖速古王貴須王 與故旱岐等 始約和親 式爲兄弟 於是我以汝爲子弟 汝以我爲父兄 共事天皇 俱距強敵 安國全家 至于今日 言念先祖與舊旱岐 和親之詞 有如皎日”이라 한 기사 참조.

그렇지만 이 북진 작업은 백제 단독의 힘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성왕은 신라에게 함께 고구려를 치자고 제안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러한 백제의 제안을 신라는 의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까지 보조를 같이 하였던 신라가 백제의 제의를 거부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기 어렵지만 필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고구려가 비록 한강유역을 빼앗겼다 하더라도 濟羅의 힘만으로 더 이상의 북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眞興曰 國之興亡在天 若天未厭高麗 則我何敢望焉’이라 한 기사에서 짐작할 수 있는 바이다. 그래서 선불리 고구려 영내로 깊숙이 들어갔다가 낭패를 당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였을 수 있다. 둘째는 백제의 제안을 따르더라도 신라는 서해안지역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시기 신라의 대중교통로는 백제의 해안선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신라로서는 취약점이었고 그 때문에 신라는 대중국 직항로를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가 백제를 도와 북진을 하더라도 서해안지역은 당연히 백제가 차지할 것이므로 신라의 소망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셋째는 한강유역을 차지한 이후 예상되는 백제의 비약적인 성장이 도리어 자국에게 위협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삼국 사이에서 세력균형의 추를 쥐고 있으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던 신라로서는 백제의 盛勢가 힘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고 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백제와 협력하지 않은 것이 자국의 이익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신라는 백제의 제안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백제의 계획을 고구려에 통보하였던 것이다.

한편, 이 시기 고구려는 551년 백제·신라·가야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남방전선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서북지방에서는 돌궐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었다.¹¹⁷⁾ 이러한 상황은 고구려로서는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때문에 고구려는 이러한 위급한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때에 신라가 고구려에 접근해 왔던

117) 노태돈, 1999, 앞의 책, 402~408쪽.

것이다. 제라 군사동맹이 공고해지는 것을 우려해 왔던 고구려로서는 신라의 이러한 접근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었다. 신라와의 관계를 맺게 되면 백제와 신라의 사이를 떼어놓을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남방전선에 대한 근심을 덜 수 있게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고구려는 ‘高麗感其言 與羅通好’라 한 것에서 보듯이 신라와 화호관계를 맺었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신라와 고구려와의 화호관계를 ‘羅濟密約’이라 표현해 왔다. 그런데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는 비밀스러운 약속이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때의 신라와 고구려와의 우호관계 수립에만 밀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면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하려고 한 것은 언제이고 고구려와 신라가 통화한 시기는 언제일까. 그 시기를 추정하는데 단서가 되는 것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先是’이다. 先是는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령한 553년 이전이어야 한다. 그런데 『일본서기』 흙명기 13년(552) 5월조에는 성왕이 “高麗與新羅通和并勢 謀滅臣國與任那”라 하였다는 기사가 나오므로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하고자 한 것은 551년 9월 이후에서 552년 5월 이전의 어느 시기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552년 5월에는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 이미 화호가 맺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화호관계를 맺은 고구려와 신라는 『일본서기』 흙명기에 나오는 “高麗與新羅通和并勢 謀滅臣國與任那”라 한 기사나 “今年忽聞新羅與狛國通謀云……”이라 한 기사 등¹¹⁸⁾에서 보듯이 백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가하였다. 이러한 압박은 한강 하류지역을 차지함으로써 기세를 올리고 있는 백제의 예기를 꺾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자 백제는 왜에 원병을 요청하여¹¹⁹⁾ 대응하려 하였지만 화급하게 전개되는 고구려와 신라의 ‘通和并勢’한 압박을 견디기 어려웠다. 이에 백제는 큰 희생을 내지 않고 후일을 도

118) 『일본서기』 권19, 흙명기 13년, 14년조.

119) 『일본서기』 권19, 흙명기 13년조에 “高麗與新羅通和并勢 謀滅臣國與任那 故謹求請救兵 先攻不意……”라 한 기사 참조.

모하기 위해 “是歲 百濟棄漢城與平壤”¹²⁰⁾이라 한 기사에서 보듯이 애써 점령한 한성과 평양지역을 포기하였다. 그 덕분에 신라와 고구려는 큰 전투 없이 무혈 입성할 수 있었다.

백제가 이처럼 한성과 평양을 포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서기』에

新羅因此入居漢城 今新羅之牛頭方 尼彌方(地名未詳)¹²¹⁾

이라 한 기사에서 보듯이 신라는 漢城에만 입성하였다. 이는 평양지역은 고구려가 차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 것은 양국 사이에 이루어진 협약 때문이 아닐까 한다. 동맹국이 공동의 군사작전을 하였을 때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협의하기 마련이다. 648년에 신라 김춘추가 당태종과 나당동맹을 체결하면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대동강 이남지역은 신라가 차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그 예가 된다.¹²²⁾ 551년에 백제·신라·가야가 고구려를 공격하면서 한강 하류는 백제가, 상류는 신라가 차지한 것도 미리 합의된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신라와 고구려도 공동의 군사작전을 수행하면서 한성지역은 신라가, 평양지역은 고구려가 차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신라는 한성에만 입성하였고 고구려는 평양지역을 차지하지 않았을까 한다. 고구려가 평양지역을 차지하였다는 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백제가 백합야새에서 고구려를 공격한 것에서 입증된다. 고구려가 평양지역을, 신라가 한성지역을 차지한 시기에 대해 『삼국사기』에는 553년으로, 『일본서기』에는 552년으로 나와 1년의 차이가 난다. 이 두 연대 가운데 어느 것이 맞는지 단정하기 어렵지만 여기서는 일단 『삼국사기』의 연대를 따르기로 한다.

한강유역을 차지한 신라는 이곳에 신주를 설치하고 아찬 김무력을 군주로

120)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3년조.

121)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3년조.

122)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진덕왕 2년조 및 권7, 신라본기, 문무왕하 11년조.

임명하였다.¹²³⁾ 이 신주의 관할 범위는 평양지역은 고구려가 차지하였기 때문에 한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이남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성을 차지함으로써 신라는 이 지역이 가지는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직접 통할 수 있는 교통로를 확보하게 되었다. 또 고구려는 비록 한강 이남지역은 상실하였지만 평양지역을 확보하였고 나아가 백제와 신라를 갈라놓게 됨으로써 후방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백제는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 아픔을 당하였다.

2. 백제의 반격과 실패

1) 百合野塞 戰鬪

신라와 고구려의 압박으로 한강유역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한 백제는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야 하였다. 이 두 세력이 계속 힘을 합쳐 압박을 가해올 경우 백제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성왕은 신라가 비록 배신하였지만 이제까지 共守동맹을 유지해 왔던 점을 매개로 하여 신라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성왕은 31년(553)에 왕녀를 신라왕에게 보냈고 진흥왕은 이 왕녀를 받아들여 小妃로 삼았다.¹²⁴⁾ 진흥왕이 백제 왕녀를 소비로 맞이한 배경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성왕이 왕녀를 보내면서 한강유역을 되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한성지역을 차지한 신라로서는 고구려의 동향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고 고구려로 하여금 신라에 대한 압박을 가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진흥

123)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진흥왕 14년조에 “秋七月 取百濟東北鄙 置新州 以阿滄武力爲軍主”라 한 기사 참조.

124)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진흥왕 14년조에 “冬十月 娶百濟王女爲小妃”라 한 기사 참조.

왕은 백제 왕녀를 받아들인 것이 아닐까 한다.

성왕은 왕녀를 보내 위기 상황은 일단 넘겼지만 한강유역에 대한 집착은 버릴 수 없었다. 성왕으로서는 한강유역의 회복은 필생의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왕은 한강유역을 되찾기 위한 작업을 재추진하였다. 그러나 한강유역 재탈환작전은 백제의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어려웠다. 이에 성왕은 왜에 지원병을 요청하기로 하고 552년 동10월에 왜에 불교를 전해주었다.¹²⁵⁾ 왜는 백제의 요청에 응하여 553년 6월에 군사지원을 약속하고 良馬 2필, 同船 2척, 弓 50張, 箭 50具를 보내주었다.¹²⁶⁾ 이러한 사실은 왜의 백제에 대한 군사 지원이 백제의 선진문물 제공에 대한 反對給付의 성격이 강하였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왜로부터 일정한 군사지원을 받은 백제는 한강유역을 회복하기 위한 공략에 나섰다. 이 공략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고구려를 먼저 공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라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먼저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정리해 두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일본서기』 흠명기와 『구당서』에 나오는 다음의 기사이다.

B-1. 冬十月庚寅朔己酉 百濟王子餘昌(明王子威德王也) 發國中兵向高麗國 築百舍野塞 眠食軍士 是夕觀覽鉅野墳映 平原瀟迤 人跡罕見 犬聲蔑聞. 俄而愴忽之際 聞鼓吹之聲 餘昌乃大驚 打鼓相應 通夜固守. 凌晨起見 曠野之中 覆如青山 旌旗充滿 會明有着頸鎧者一騎 插鏡者二騎 珥豹尾者二騎并五騎 連轡到來 問曰小兒等言 於吾野中 客人有在 何得不迎禮也 今欲早知 與吾可以禮問答者姓名年位 餘昌對曰 姓是同姓 位是扞率 年二十九矣 百濟反問 亦如前法而對答焉 遂乃立標而合戰 於是 百濟以鋒 刺墮高麗勇士於馬斬首 仍刺舉頭於鋒末 還入示衆 高麗軍將憤怒益甚 .是時 百濟歡叫之聲 可裂天地 復其偏將 打鼓疾鬪 追却高麗王於東聖山之上¹²⁷⁾

125)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3년조.

126)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5년조.

127)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4년조.

B-2. 乃問其使爲怨所由 對曰先是百濟往伐高麗 詣新羅請救 新羅發兵
大破百濟國 因此爲怨 每相攻伐 新羅得百濟王殺之 怨由此始¹²⁸⁾

B-1의 기사는 백제 왕자 여창이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하여 百舍野塞를 쌓고 고구려와 대결하였음을 보여준다. 百舍野塞의 위치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시기 고구려가 平壤=楊州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음에서 미루어 볼 때 평양=양주지역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지 않았을까 한다.¹²⁹⁾

B-2의 기사는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하자 고구려는 신라에 구원을 요청하였고 신라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군대를 발동하여 백제국을 크게 격파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백제와 신라는 공방전을 되풀이 하였고 마지막에 신라는 백제왕을 잡아 죽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³⁰⁾ 그렇다고 하면 이 기사의 내용은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는 백제가 고구려를 쳤다는 것, 2단계는 고구려는 신라에 구원을 요청하였고 신라는 고구려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원군을 보내 백제군을 물리쳤다는 것, 3단계는 그 후에 신라가 백제왕을 붙잡아 죽였다는 것이다. 1단계와 2단계는 서로 연결되는 것이고 3단계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笥山城 전투와 관련된다.

B-1의 기사에 의할 때 百舍野塞는 전투는 553년 10월에 일어났다. 이 전투에 백제와 고구려가 동원한 군대의 규모는 ‘悉發國中兵’이라 한 기사라든가 ‘覆如青山 旌旗充滿’이라 한 기사에서 보듯이 매우 컸다. 또 이 전투에는

128) 『구당서』 권199, 상 열전149, 동이신라전. 『신당서』 권220, 동이열전 제145에는 “初百濟王伐高麗 來請救 悉兵往破之 自是相攻不置 後獲百濟王殺之 滋結怨”으로 나온다.

129) 백합야새를 황해도 황주 蒜山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岩波講座, 『日本書紀』 下, 106쪽 頭注 8 참조).

130) 노태돈, 1992, 「고구려의 한수유역 상실의 원인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1(한국사연구회) 참조. 반면에 이 문장을 “지난 날 백제가 고구려를 치러 갈 적에 신라에게 구원을 청하였는데 신라는 군대를 동원하여 백제국을 쳐부수었다”고 해석한 경우도 있다(서영수, 1987, 『중국정사조신전 譯註二』(국사편찬위원회)). 그러나 백제가 신라에게 원병을 요청하였는데 신라가 도리어 백제를 쳤다고 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신라에게 원병을 요청한 것은 고구려이지만 앞에 고구려가 나왔기 때문에 원병을 청한 주체로서의 고구려는 생략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고구려 장군 5명이 말을 탔다든가 백제 군사가 고구려 용사의 머리를 마상에서 베었다든가 하는 기사에서 보듯이 기마병도 동원되었다. 이 전투의 결과는 백제군의 승리로 끝났고 고구려군은 동성산 위로 쫓겨 갔다.

그런데 B-1의 기사에는 백제가 고구려군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를 보완해 주는 것이 B-2의 1단계 및 2단계 기사이다. 1단계의 기사에서 백제가 고구려를 쳤다는 것은 백합야세의 전투에서 고구려가 패배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2단계 기사는 패배한 고구려가 신라에 구원을 요청하였고 신라는 그 요청에 따라 대규모의 군대를 보내 백제군을 물리친 것을 보여준다. 이는 『일본서기』에 종종 나오는 高麗與新羅通和并勢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로써 고구려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2) 관산성 大會戰과 久陀牟羅塞 전투

백합야세 전투에서 보듯이 백제는 고구려군을 물리쳐 승세를 탔지만 신라가 고구려를 지원함으로써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따라서 성왕의 한강유역 회복작전에는 신라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고 신라를 꺾지 않고서는 한강유역을 되찾을 수 없었다. 이에 백제는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 먼저 가야군과 왜군을 원군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백제가 가야군을 끌어들이었다는 것은 『삼국사기』 진흥왕기에 백제왕 明禮이 加良과 함께 관산성을 공격하였다고 한 것에서¹³¹⁾ 확인되는 바이다. 한편, 백제는 554년에 왜에 사신을 보내 군사지원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왜는 군대 1천 명과, 말 100필, 배 40척을 보낼 것을 약속하였다. 백제는 그러한 약속에 대한 대가로 553년에 왜가 요청한 五經博士와 醫博士, 易博士, 曆博士 등과 採藥師, 樂人 등을 보내주었다.¹³²⁾ 이리하여 有至臣이 거느린 왜군은 554년 5월

131)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진흥왕 15년조에 “百濟王明禮與加良 來攻管山城”이라 한 기사 참조.

132)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5년 2월조.

에 백제로 출발하여 6월에 도착하였다.¹³³⁾

가야군과 왜군의 지원을 얻게 된 백제는 554년 신라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였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삼국사기』 진흥기와 『일본서기』 흠명기에 나오는 다음의 기사이다.

- C-1. 百濟王明禮與加良 來攻管山城 軍主角干于德伊滄耽知等 逆戰失利 新州軍主金武力 以州兵赴之 及交戰 裨將三年山郡高干都刀急擊殺百濟王 於是 諸軍乘勝 大克之 斬佐平四人 士卒二萬九千六百人 匹馬無反者¹³⁴⁾
- C-2. 以十二月九日 遣攻斯羅 臣先遣東方領物部莫哥武連 領其方軍士攻函山城 有至臣所將來民竹斯物部莫奇委沙奇能射火箭 蒙天皇威靈 以月九日酉時 焚城拔之 故遣單使馳船奏聞¹³⁵⁾
- C-3. 第二十四眞興王 卽位時年十五歲 …… 承聖三年九月 百濟兵來侵於珍城 掠取人男女三萬九千 馬八千匹而去¹³⁶⁾

C-1의 기사에 의하면 백제와 신라의 공방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째 단계는 백제군이 관산성을 공격하여 신라군을 궁지로 몰아넣은 것이고, 둘째 단계는 신라의 신주 군주 김무력이 원군을 이끌고 와서 백제와 싸워 백제군을 대파하고 성왕을 잡아 죽인 것이다.

C-2의 기사에 의하면 백제는 553년 12월에 신라의 함산성을 공격하였는데 이 싸움에는 왜군도 참여하였다. 함산성=관산성은 충북 옥천인데 이 함산성 공격의 선봉은 東方領인 物部莫奇武連이 맡았다. 이 전투에서 백제군은 관산성을 함락시켜 승기를 잡았고 신라는 큰 타격을 입었다.

신라가 입은 타격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 C-3의 기사이다. 이 기사에 의하면 백제는 承聖 三年(554)에 신라의 珍城³⁷⁾을 공격하여 남녀 3만 9천명과 말

133)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5년 하5월초 및 동12월초.

134)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진흥왕 15년조.

135)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5년 동12월초.

136) 『삼국유사』 권1, 기이1, 진흥왕조.

8천 필을 빼앗아 돌아갔다. 이는 C-1의 신라군이 실리하였다는 것이나 C-2의 백제가 함산성을 함락하였다는 것과 내용이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C-1과 C-2의 기사를 연결시킬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전투 날짜가 『삼국유사』에는 9월로, 『일본서기』에는 12월로 나온다고 하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고 하기보다는 전투가 벌어진 곳이 한 곳만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보면 9월에는 진성에서 전투가 있었고 12월에는 함산성에서 전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신라가 패배하자 고구려가 신라를 지원하고 나섰다. 『일본서기』 흠명기에

別奏 若但斯羅者 有至臣所將軍士 亦可足矣 今狛與斯羅 同心戮力 難可成功¹³⁸⁾

이라 한 기사가 이를 보여준다. 백제는 나라연합군에 대항하기 위해 왜에 군사 지원을 더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가야와 더불어 신라에 대한 두 번째의 공격을 시도하였다. 이 공격은 왕자 餘昌이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선봉에 섰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일본서기』 흠명기에 나오는 다음의 기사이다.

餘昌謀伐新羅 耆老諫曰 天未與 懼禍及 餘昌曰 老矣 何怯也 我事大國 有何懼也 遂入新羅國 築久陀牟羅塞 其父明王憂慮 餘昌長苦行陣 久廢眠食 父慈多闕 子孝希成 乃自往迎慰勞 新羅聞明王親來 悉發國中兵 斷道擊破 是時 新羅謂佐知村飼馬奴苦都(更名谷智)曰 苦都賤奴也 明王名主也 今使賤奴殺名主 冀傳後世 莫忘於口而已 苦都乃獲明王 再拜曰 請斬王首 明王對曰 王頭不合受奴手 苦都曰 我國法 違背所盟 雖曰國王 當受奴手(一本云 明王乘踞胡床 解授佩刀於谷智令斬) 明王仰天太息涕泣 許諾曰 寡人每念 常通入骨髓 顧計不可苟活 乃延首受斬 苦都斬首而殺 掘坎而埋(一本云 新羅留理明王頭骨 而以禮送餘骨於百濟 今新羅王

137) 於珍城으로도 볼 수 있다.

138)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5년 12월조.

埋明王骨於北廳階下 名此廳曰都堂) 餘昌遂見圍繞 欲出不得 士卒遑駭 不知所圖 有能射人 筑紫國造 進而彎弓 占擬射落新羅騎卒最勇壯者 發箭之利 通小乘鞍前後橋 及其被甲領會也 復續發箭如雨 彌厲不懈 射却圍軍 由是 餘昌及諸將等 得從間道逃歸 餘昌讚國造射却圍軍 尊而名曰鞍橋君(鞍橋此云炬羅賦) 於是 新羅將等具知百濟疲盡 遂欲謀滅無餘 有一將云 不可 日本天皇 以任那事 屢責吾國 況復謀滅百濟自家 必招後患 故止之¹³⁹⁾

이 기사에 의하면 백제에서는 여창을 선두로 하여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하였다. 물론耆老들은 이러한 군대 동원에 반대하였지만 여창은 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군대를 동원해 나갔던 것이다. 여기에는 지원병으로 온 가야군과 왜군도 가세하였다. 이리하여 백제는 백제군과 왜군 및 가야군으로 삼군을 편성하여 신라 공격에 나섰다. 다만 가야군에 대해 백제는 “又奏臣別遣軍士萬人助任那”¹⁴⁰⁾라 한 기사에서 보듯이 1만 명의 군대를 보내 합동작전을 하도록 하였다.

백제-가야-왜군으로 구성된 공격군은 신라로 진격해 들어가 구타모라새를 쌓고 영채를 세웠다. 구타모라새의 위치는 알 수 없지만 관산성과는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백제군의 공격에 대응하여 신라는 新州의 군대를 원군으로 파견하였다. 이때 신주 군주는 金武力이었다. 양군의 대결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정도였고 그리하여 ‘長苦行陣’에서 보듯이 지구전적인 대결 양상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 성왕의 전사이다. 성왕은 최전선에 나가 있는 아들 여창을 위문하기 위해 餘昌의 진지로 향하였다.¹⁴¹⁾ 이때 성왕이 거느린 군대의 규모는 50여 步騎였다.¹⁴²⁾ 성왕의 이러한 거동을 미리 탐지한

139)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5년 12월조.

140)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5년조.

141)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5년 12월조에 “其父明王憂慮餘昌長苦行陣 久廢眠食 父慈多厥 子孝希成 乃自往迎慰勞”라 한 기사 참조.

142)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 성왕 32년조에 “秋七月 王欲襲新羅 親帥步騎五十 夜

신라는 호기를 놓치지 않고 성왕이 가는 길에 복병으로 숨겨두고 나머지 대군은 복병이 성왕을 죽이는 대로 그 기세를 몰아 여창의 군대를 포위·공격하기로 하였다. 이때 비장인 삼년산군 高干 都刀가¹⁴³⁾ 마침내 성왕을 사로잡아 죽였다. 『일본서기』에는 성왕이 도도에 의해 목이 베이는 모습이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성왕을 기습 공격하여 사로잡아 죽인 신라는 다음날 여창의 군대를 포위 공격하였다. 성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혼란에 빠진 백제군은 신라 대군의 기습적 공격을 감당하지 못하여 대패하였다. 그리고 선봉장으로 나선 여창도 왜군의 도움을 받으면서 겨우 포위를 뚫고 나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 전투에서 백제는

於是 諸軍乘勝 大克之 斬佐平四人士卒二萬九千六百人 匹馬無反者¹⁴⁴⁾

라 한 기사에서 보듯이 성왕이 죽고 4명의 좌평이 포로로 잡히고 3만에 가까운 士卒이 전사하는 패배를 입었다. 물론 戰功의 기록에는 과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패배는 백제로서는 엄청난 타격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써 한강유역을 회복하여 국세를 떨치려던 성왕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백제와 신라가 대회전을 벌인 시기에 대해 『삼국사기』에는 554년 추7월로 나오고 『일본서기』에는 12월로 나와 5개월의 차이가 난다. 어느 것이 타당한지 분명히 하기 어렵지만 이 대회전이 일회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백제와 신라의 전투는 554년 7월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이 종결된 것은 12월이었다. 『삼국사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554년 7월조에 수록하였고, 『일본서기』에서는 12월조에 수록하였기 때문

至狗川 新羅伏兵發與戰 爲亂兵所害 薨 諡曰聖”이라 한 기사 참조.

143)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5년조에는 佐知村司馬奴苦都(更名谷智)로 나온다.

144)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진흥왕 15년조. 본서 권40, 열전 제3, 김유신 전 하에는 “昔者百濟明禮王在古利山 謀侵我國 庾信之祖武力角干 爲將逆擊之 乘勝俘其王及宰相四人與士卒 以折其衝”으로 나온다.

에 날짜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한다.

VI

고구려의 평양지역 및 함흥지역 상실 - 맺음말에 대신하여 -

신라는 554년 관산성 전투, 즉 구타모라새 전투에서 백제군을 대파하고 성왕과 좌평 4명을 비롯하여 3만에 가까운 士卒을 전사시키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면 이후 신라의 움직임이 어떠하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북한산비와 마운령비 및 황초령비이다. 이 비는 진흥왕이 이 지역들을 순수한 후 남겨 둔 비로서 비가 세워진 시기는 568년이다. 따라서 이 비들은 568년 이전에 북한산지역과 함흥지역이 신라의 영역이 된 것을 의미한다.

신라가 이 지역을 영역으로 편입하게 된 시기와 계기에 대해 552년이나 553년에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고구려와 밀약을 맺을 때 고구려가 남방전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강유역과 더불어 함흥지역을 신라에게 양보한 것으로 본 견해가 있어 왔다.¹⁴⁵⁾ 그러나 남방전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구려가 함흥지역까지를 떼어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고구려와 신라가 합세하여 백제를 공격할 때 한성지역은 신라가 차지하고 평양지역은 고구려가 차지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554년 이후 삼국의 상황과 연관시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시기 백제는 관산성 전투에서의 패배가 준 충격으로 말미암아 한동안 기세를 펼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耆老들이 위덕왕에게 패전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실권을 장악해 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위덕왕은 출

145) 노태돈, 1999, 앞의 책, 433쪽.

가 수도하려는 마음을 먹기도 하였다.¹⁴⁶⁾ 백제의 이러한 상황은 신라로 하여금 백제에 대해서는 당분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하였을 것이다. 한편, 고구려는 백제와의 百舍野塞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였다. 더구나 이 시기 고구려는 서북지역으로부터 미쳐오는 돌궐의 압박을 보다 강하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주력군을 남쪽으로 돌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백제와 고구려가 처한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진흥왕은 이때가 바로 영역을 크게 확장할 수 있는 호기로 생각하고 고구려와의 합의를 깨뜨리고 독자적인 길을 걷지 않았을까 한다. 이 점은 『일본서기』에 554년 이후 신라와 고구려가 합세하였다는 기사가 나오지 않는 것에서도 방증이 되리라 본다.

이처럼 독자 노선을 걷기로 결심한 진흥왕은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지역을 차지하고 또 함흥지역도 점령하였다. 신라가 한강 이북지역을 차지한 시기는 진흥왕의 북한산 순수와 연관시켜 추정해 볼 수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진흥왕은 16년(555) 동10월에 북한산을 巡幸하여 封疆을 拓定하였다.¹⁴⁷⁾ 이는 555년 10월 이전에 북한산지역이 이미 신라의 영역이 된 것을 보여준다. 아마도 진흥왕은 554년 추7월에서 12월 사이에 벌어진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군을 대파한 후 곧장 한강 북쪽으로 진격하여 고구려가 장악하고 있던 평양지역을 점령한 후 555년 10월에 이곳을 순행하지 않았을까 한다.

한편, 신라가 함흥지역으로 진출한 시기는 진흥왕 17년(556) 比列忽州의 설치에서¹⁴⁸⁾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전에 신라가 동해안지역에 설치한 주는 河瑟羅州가 제일 북쪽이었다. 비열홀주는 그 보다 훨씬 북쪽인 안변에 설치되었으므로 비열홀주의 설치의 신라의 함흥지역으로의 진출과도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즉 554년 7월에서 555년 10월 사이의 어느 시기에 한강 이북을

146) 『일본서기』 권제19, 흠명기 16년조 “八月 百濟餘昌謂諸臣等曰 少子今願奉爲考王 出家脩道……” 기사 참조.

147)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진흥왕 16년조에 “冬十月 王巡幸北漢山 拓定封疆 十一月 至自北漢山 敎所經州郡 復一年租調 曲赦 除二罪 皆原之”이라 한 기사 참조.

148)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진흥왕 17년(556)조에 “秋七月 置比列忽州 以沙滄起宗 爲軍主”라 한 기사 참조.

지역을 차지한 신라는 곧 동해안으로 북진해 올라가 함흥지역까지 점령한 후 안변에 비열홀주를 설치하고 사찬 성종을 군주로 삼아 새로운 정복지를 관할하게 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렇게 한강유역과 함흥지역까지를 장악함으로써 신라의 영역은 최대로 확대되었다. 이에 진흥왕은 새로이 영역으로 편입된 지역의 민심도 探訪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雄志를 표방하기 위해 순수를 실시하였다. 그래서 한강유역을 순수하여 북한산에 북한산비를 세웠고, 함흥지역을 순수하면서 마운령비와 황초령비를 세웠던 것이다.

[ABSTRACT]

The relations between Koguryo and Paekche
for the 5th~6th centuries
—focusing on the power of Koguryo in the basin of the Han River—

Noh, Choong-Kook

Koguryo and Paekche formed the central forces, Silla and Gaya had connection with them on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5th~6th centuries. The event that appeared the relationship of power was a scramble for the possession of the basin of the Han River between three powers in 475~551.

Koguryo seized Han-Seong, the capital of Paekche, in 475. The fact that Koguryo was occupying the basin of the Han River in 475~551 was proved by the ruins of Koguryo at A-Cha-San, Wol-Pyeong-Dong, and Nam-Seong-Gol. Koguryo established three strongpoints, that is, Han-Seong, Pyeong-Yang(Yang-Ju), and Guk-Won-Seong. At first a central strongpoint was Han-Seong, at last it was Pyeong-Yang(Yang-Ju).

According to *Samguksagi*, Paekche was included the place names that were located in the north of the Han River and Hwang-Hae-Do. The present writer's opinion is that the royal household of Paekche lent the place names of the basin of the Han River for the rule after the transfer of the capital to Ung-Jin, or that the residents migrated to the south after the collapse of Han-Seong

continually used the former place names at new resettlement regions.

Paekche formed a military alliance with Silla · Gaya. They attacked Koguryo in 551. By the attack, Paekche occupied the lower Han River, Silla · Gaya occupied the upper Han River. The King of Seong continually attempted to march to the north. On the contrary, Silla tried to contact with Koguryo. At last, Koguryo established friendly relations with Silla for the stability of the south. They oppressed Paekche. Therefore, Koguryo possessed Pyeong-Yang(Yang-Ju), Silla possessed Han-Seong.

After taking away the basin of the Han River, Paekche attacked Koguryo for restoring it, and took a victory at Baek-Hap-Ya-Sae in 553. Paekche attacked also Silla in 554, but it suffered a heavy loss at the battle of Gwan-San-Seong. After defeating Paekche, Silla usurped Pyeong-Yang(Yang-Ju) by taking advantage of the Koguryo's situation that was oppressed by Dol-Gwol from the west-north. Moreover, Silla advanced on Ham-Heung. Finally, a scramble for the possession of the basin of the Han River between three powers ended in a victory for Silla.